No.1 시니어 전문 케어
센터메디컬그룹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

기독일보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귀국이사·타주이사·시내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T: (877)580-2424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WWW.CHDAILY.COM FRIDAY, November 6, 2026 Vol. 1031



2026 Compelling Preaching Conference가 풀러신학교 캠퍼스와 온라인을 통해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개최됐다. ⓒ 기독일보

"설교 뒤에는 설교자가 있다" 풀러신학교, 설교의 본질 모색

풀러신학교 코리안 센터 주최 설교 컨퍼런스: 형성, 과정, 맥락으로의 설교

지난 10월 26일(월) 풀러신학교 코리안 센터 주최 'Compelling Preaching Conference: 형성, 과정, 그리고 맥락으로의 설교'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패서디나 풀러신학교 캠퍼스 1층 강의실과 온라인을 통해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컨퍼런스는 성과주의, 소비주의, 다문화·다세대적 현실 속에서 한국 이민교회의 설교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는 오전 김남중 교수(클레어몬트 신학교)의 기조강연 '설교의 설득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설교자의 존재론적 형성과 공적 증언'으로 시작됐다.

이어 주제세션 1 '설교자의 영성 형성', 주제세션 2 '과정', 주제세션 3 '맥락'이 차례로 진행됐다.

주제 세션 1에서는, 이아미 교수(Dr. Ahmi Lee, 풀러 신학교)가 '다중방식 언어를 구사하는 설교자 형성: 설교의 공명을 위한 성경의 다양한 말하기', 김세염 목사(게렛 에반젤리컬 신학교)가 '함께 웃고, 춤추고, 노래하세요: 강박적 환경에서 설교자의 영성 훈련을 위한 제안', 강준민 목사(새생명비전교회)가 '성령 안에 거하는 설교자'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이아미 교수는 오늘날 설교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과 '개인의 심리적 안정'만을 추구하는 'MTD (Moralistic therapeutic deism, 도덕주의적 심리치료적 이신론)'에 물들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복음이 '의무'나 '위로'로 축소될 때 설교가 생명력을 잃는다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가정법'과 '희구법'을 제시했다.

"가정법은 고난과 갈등 속에서 중요하다. 신앙의 의문에 성급하게 답하거나 손쉬운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 현재의 고통과 현실을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가능성을 열어준다.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Not Yet'의 시간을 살아가는 교회에는 이러한 소망의 언어가 필요하다."

그는 '가정법'을 월터 브루그만이 말한 '예언자적 역할'인 '비판'과 '활력 부여'에 연결해 설명했다.

"Criticism은 현실의 고통과 불의를 정직하게 드러내고, 지금의 상황을 당연하거나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지금의 현실이 전부가 아님을 일깨우고 공동체가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힘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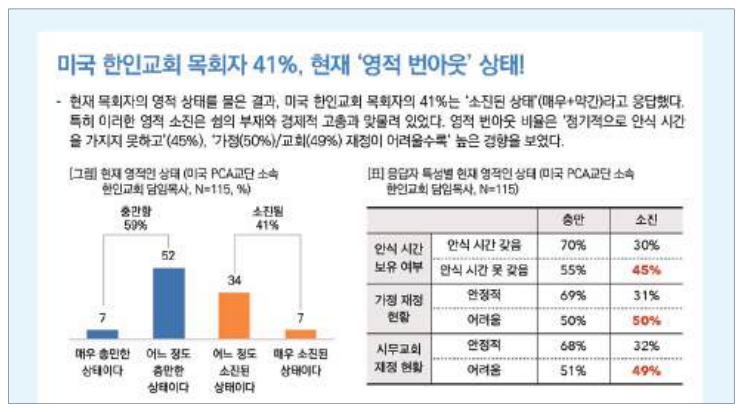
그러면서, 가정법이 'MTD의 낙관주의'와 '기독교적 소망'을 구별해 준다고 말했다.

"MTD가 '상황의 개선'과 '개인의 행복'에 기대를 건다면, 기독교의 소망은 상황이 달라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며 새롭게 일하실 수 있다는 믿음에 뿌리를 둔다. 가정법은 성도들이 현실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그분이 여실 미래를 향해 살아가도록 격려한다."

이어 MTD적 설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또 다른 화법으로 희구법을 제시했다.

"희구법은 자기중심적 신앙을 넘어 하나님의 사역에 눈을 돌리게 한다. 이를 통해 교회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소망에 따라 살아가는 법을 배운다."

주디 한 기자 ➔ 2면에서 계속



넘버즈 343호. ⓒ목회데이터연구소

담임목사 절반 이상 목회 중단 · 휴직 고려

담임목사 중 절반 이상이 최근 1년 사이 목회 사역 중단이나 휴직을 고려해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회데이터연구소(이하 목데연)는 구독자 중 담임목사 368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일까지 '최근 1년 사이 목회 사역 중단이나 휴직을 고려해 본 적이 있는지'를 물어 2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담임목사의 절반이 넘는 54%가 사역 중단이나 휴직을 고려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목데연은 "과반의 목회자가 심각한 번아웃과 사역적 부담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앞서 목데연이 미국 한인교회 목회자들의 목회 실태를 조사한 결과, 목회자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이 현재 영적 번아웃(소진) 상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해 미국 한인교회 목회자의 41%는 자신이 '소진된 상태'에 있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영적 소진이 충분한 휴식의 부재와 경제적 어려움 등과 밀접한 관련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목데연은 "한인교회 목회자 41%가 영적 번아웃을 경험하고 있고, 3명 중 1명은 외로움을 겪고 있는 현실은 목회자의 정서적·영적 위기가 더 이상 개인의 인내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어 "정기적인 안식 시간을 갖지 못하거나 교회와 가정의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목회자에게서 소진 비율이 더욱 높게 나타난다"며 "목회자의 번아웃을 단순히 영성 부족이나 자기관리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교회 구조와 지원 체계의 문제로 함께 인식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개교회가 모든 책임을 담임목사 개인에게 집중시키는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제언했다. 목데연은 "교회 차원에서는 안식월과 휴가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노회와 총회는 쉼과 회복 프로그램, 동료 목회자 모임, 멘토링과 상담, 중소형교회 재정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당신의 가장 소중한 자산,
내 집을 구하는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믿고 선택하시면, 최고의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213-700-3239 정부보조 상담 환영
yunyoungkwag@gmail.com
3030 W 8th St. #200, Los Angeles CA 90005
NEWST★R Realty & Inv.
DRE# 01935957 곽 윤 영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상법/부동산법 ▪뱅크럽시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대면·전화상담 예약 213.820.3704

교회및비영리단체도 최대 40%를
태양광설치비의 현금으로돌려받으세요!
연방정부의 DirectPay프로그램으로 교회도 현금환급이 가능합니다
B.T.S SOLAR DESIGN
213-500-8000 2027년 말 비영리단체 지원 인센티브가 종료! 지금 시작해야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마동환 변호사 그룹 대표
(현) 굿네이버스 USA 이사장
(전) 남가주 교회협의회 고문 변호사
(전) 재미 발명가 협회 고문 변호사
(전) 증부 상공회의소 이사장

www.marhlaw.com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변호 의뢰인의 처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 변호
실력 문제의 핵심이슈 파악 법에 관한 해박한 지식과 적용
정성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하는 것을 원칙
책임 모든 과정에 대한 책임 의뢰인과의 대화 창구 활짝 열림
신 뢰 의뢰인과의 인연을 소중히 생각
상법 / 부동산법
상법의 전반적인 분야(비즈니스, 부동산법, 세관법, 운송법, 국제법, 특허법)에 걸쳐 오랜 기간 그 실력을 인정받아 온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그 어느 분야보다도 상법에서는 지략과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피지가 이루어지려면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긴밀한 대화와 그로인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뱅크럽시
뱅크럽시는 새로운 출발은 물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법이기도 하지만,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로 섣불리 해서는 안됩니다.
꼭 변호사와 상담을 하신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마동환 변호사그룹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대면·전화상담 예약 모든 상담 절대 비밀 보장
213.820.3704
사무실 : 213.487.9190
Fax : 213.487.9484 marhlaw@yahoo.com
Main : 700 S. Flower St., #1000 LA, CA 90017
3435 Wilshire Blvd. #2700 LA., CA 90010

2026 천국의 찬양제 “하나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오픈청지기재단, 미주 CBS TV 공동 주최 오픈뱅크 후원
천국의 찬양제 11개 교회 참여

‘2026 천국의 찬양제’가 25일 주일 저녁 남가주 새누리교회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오픈청지기재단(이사장 최화섭)과 미주 CBS-TV(대표 이종용)가 공동 주최하고 오픈뱅크(행장 오상교)가 후원한 이날 행사에는 LA와 오렌지카운티 지역 11개 교회 성가대원 460여 명이 참가했다. 이날 경연이 열린 새누리교회는 1000 여 명 이상의 관객으로 가득찼다.

심사는 윤임상 교수(월드미션대학교)가 위원장을 맡고 김용제 지휘자, 지경 교수(베데스다대학·랩시모어대학), 이영관 교수(코너스톤교회 예배음악 디렉터) 등이 참여했다.

이날 1등은 ‘자유케 하시네’를 찬양한 로렌하이츠 아름다운교회 성가대에게 돌아갔으며 은혜한인교회 성가대가, 가디나 성화장로교회 성가대가 각각 2등과 3등을 수상했다.

수상 교회에는 헌금(상금)금과 상패가 수여됐다. 1등에는 1만 달러, 2등에는 7,000 달러, 3등에는 5,000달러가 전달됐으며, 입상하지 못한 교회에도 각각 2,000 달러의 격려금이 전달됐다.



교회 연합 성가축제인 ‘2026 천국의 찬양제’가 새누리교회에서 개최됐다.

이번 찬양제에는 나성성결교회(지휘 신영안), 토렌스 산샘교회(지휘 황신애), 로렌하이츠 아름다운교회(지휘 최윤정), 올림픽장로교회(지휘 문혜원), 가디나 성화장로교회(지휘 전창한), 토렌스 조은교회(지휘 김재항), LA 온누리교회(지휘 이다루), 열매교회(지휘 조명희), 은혜한인교회(지휘 윤태중), 로고스교회(지휘 유의철), 선한청지기교회(지휘 채홍석) 등 11 개 교회가 참가했다.

마지막 순서로 성가대 지휘자와 담임목사, 심사위원, 주최 측 관계자들이 참석자들과 함께 ‘하나되게 하소서’를 합창했다. 참석자들이 한 목소리로 찬양하며 연합과 화합의 의미를 되새겼다. 김민선 기자

“설교는 삶을 통해 축적된 것이 흘러 나오는 것”

➔ 1면 기사 〈풀러 설교 컨퍼런스〉에 이어서

김세염 목사 목회자들이, ‘이민 목회 현장’에서 번아웃을 경험하지만, 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순례의 자리’로서 이해할 것을 제안했다.

"이민 목회의 광야는 하나님의 사람이 빚어지는 훈련의 장소이다. 설교자는 고난의 현장을 걸으며 하나님의 이야기를 새롭게 길어 올리는 '순례자'가 되어야 한다.”

그는 이민 목회자는 ‘주변’, 혹은 ‘In between’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육체적 정서적 소진과 사역에의 부담, 학문적 성취에 대한 압박감, 강박과 고립을 경험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목회자는 외로움과 고립을 경험한다. 또 이것은 자기 돌봄을 결여하게 만든다. 많은 사람을 만나고 여러 관계를 맺어도, 정작 자기 자신의 어려움을 솔직하게 말할 수 없다. 교회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지만, 결국 지쳐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김 목사는 번아웃을 방지하기 위해, 일상의 삶에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영성 리추얼’(Ritual)을 제안했다. 첫째, 주일 설교를 마친 뒤, ‘설교 일기 작성’. 둘째, 동료나 멘토와 함께 걷는 ‘묵상 산책’. 셋째, ‘설교’라는 무대 위 사역(Front stage)을 지탱해 주는 무대 뒤(Back-stage)의 안전망으로서의 ‘설교자 식탁 공동체’를 꼽았다.

그는 "일상의 작은 리추얼들을 통해 몸과 마음의 쉼을 얻고, 다시 웃고 희망을 노래할 때 다음 주 설교를 감당할 지속 가능한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권면했다.


2026 Compelling Preaching Conference.

삶의 모든 면에서 거룩을 배우라. 당신이 쓰일 수 있는가는 거기에 달려 있다. 당신의 설교는 한두 시간 밖에 지속되지 않지만 당신의 삶은 한 주일 내내 설교하기 때문이다. –로버트 머레이 맥체인

강준민 목사는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를 기초로, 설교의 중요한 요소는 ‘사람의 설득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에 있다고 강조했다.

“E.M. 바운즈(E.M. Bounds)의 『기도의 능력』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다. ‘교회는 더 나은 방법을 찾고 있지만 하나님은 더 나은 사람을 찾고 계신다.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성령이 쓰실 수 있는 사람, 즉 기도의 사람, 기도에 능한 사람이다. 성령은 방법을 통해서 오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오신다. 기름은 기계에 붓지 않고 사람에게, 그것도 기도의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신다.’"

그는 “설교 뒤에는 설교자가 있다”며, “설교는 삶을 통해 축적된 것이 설교로 흘러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로버트 머레이 맥체인은 ‘삶의 모든 면에서 거룩하라. 당신의 설교는 한두 시간밖에 지속되지 않지만 당신의 삶은 한 주일 내내 설교를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E.M. 바운즈 『기도의 능력』, 생명의 말씀사, 22쪽)

이어서, 말씀 앞에서의 ‘경외감’, ‘경이’와 ‘겸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우울증을 어떻게 극복했는지와 선행 강연에서 언급되었던 ‘성과주의’ 와 ‘소비주의’에 대한 생각도 나누었다.

“목회자가 가장 어려운 것은 침체나 공황장애를 경험할 때 의심이 오는 것이다.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것이다. ‘하나님도 나를 도울 수 없고 의사도 나를 도울 수 없다’라는 무서운 확신이 들었다. 이게 디프레션에서 오는 현상들이다.”

이어서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을 언급하며,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쓰는 것도 아니고, 다양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모든 배후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든다.”고 해석했다.

그는 인생 전반부에는 성과, 야망, 야심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전반부에는 성과, 야망, 야심 이런 게 중요하고, 또 필요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이다. 야곱도 야심가였고, 사도 바울도 야망이 컸다. 하나님이 쓰신 분들이 다 앰비셔스하다. 폴 투르니에, 카를 융이나 리처드 로어도 이 단계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다음 차원으로 들어간다.”

“카를 융에 따르면, 인간의 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 어두운 그림자를 추적하다 보면 골드 섀도우(Gold shadow)를 만난다. 우리 안에 어둠이 있는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다 보니,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이 그 안에 있다.”

다음 순서로, 질의 및 응답 세션에서는 (1) 목회자 멘토십의 필요성, (2) 우울증이나 번아웃 극복 경험, (3) 신앙의 실천적 열매로서 '좋은 사람'과 MTD가 지목하는 '좋은 사람' 의 구분, (4) 설교의 균형 등에 관한 질문이 나왔다.

강준민 목사는, 우울증 극복 경험과 관련해 모세가 자신을 죽여 달라고 요청한 장면, 예수님께서 ‘내가 고민하여 심히 죽게 되었다’라고 말한 장면 등을 언급하며, 이를 “정상적인 삶의 과정”이라고 해석했다. 또, 경쟁과 성과주의, 소비주의에 관련해, “그 부분들을 비판하기 전에 충분히 현실을 이해하고 대안을 줘야 된다. C.S. 루이스는 지옥은 잠재력을 말살시키는 곳이고, 천국은 잠재력을 극대화시키는 곳이다고 말한다. 그런 면에서도 같이 봐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아미 교수는 목회자 번아웃이, 예배 진행에 골몰한 나머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참여자기 못하는 데에서 비롯된다고 진단했다.

"예배가 먼저 목회자 자신의 상한 마음과 삶을 만지시는 치유의 자리가 될 때 번아웃이 회복된다. 목회자가 회복되면 교회는 성도들이 아픔과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가지고 나와 하나님을 만나는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다."

어떻게 설교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아미 교수는 "설교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 본문에 철저히 충실해야 한다.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만 골라서 한다면 균형이 망가질 가능성이 많지만, 평생에 걸쳐 성경 전체를 꾸준히 전할 때 균형이 살아난다. 또, '본문의 음성'과 '회중의 삶'이라는 두 축에 동시에 귀를 기울이며 함께 붙들고 가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조언했다.

오후에는 주제세션 2 ‘설교의 과정’과 주제세션 3 ‘설교의 맥락’이 진행되었다. 이번 컨퍼런스는 조의완 교수(한국어 목회학 박사과정 Chair)가 기획과 진행을 총괄했으며, 릴리 재단(Lilly Endowment Inc.)의 후원을 받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CPU 사경회, 뉴먼 목사 "언약은 다음 세대까지 이어진다"

가을 사경회, 므비보셋 이야기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 강조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대학교가 지난 27일 오후 7시 개최한 가을 사경회에서 다니엘 뉴먼 목사(아주사퍼시픽대학교(APU) 전 교수)가 사무엘하 9장 1~7절을 본문으로 '므비보셋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그는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언약과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을 향한 다윗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인간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고 강조했다.

뉴먼 목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의심이 들 때 므비보셋의 이야기를 보라. 새 언약을 보라. 예수님께서 주신 피와 몸을 보라.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어기시겠느냐. 하나님은 절대 어기지 않으신다"고 말했다.

뉴먼 목사는 언약이 단순히 개인 사이의 약속에 그치지 않고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관계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개혁주의 신학에서 언약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 자신뿐 아니라 그의 후손까지 약속의 대상으로 삼으셨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언약으로 관계를 맺으신다. 언약은 한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와 후손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다니엘 뉴먼 목사

이어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를 통해 언약의 의미를 살펴봤다.

"요나단은 자신이 가진 것을 아끼지 않고 다윗에게 주었다. 이는 자신의 왕위까지 다윗에게 내어주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이 장면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생각할 수 있다."

그는 예레미야 34장 18절과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 언약을 언급하며, 성경에서 언약을 맺는 행위가 얼마나 엄중한 약속인지를 설명했다. 당시에는 짐승을 둘로 나누고 그 사이를 지나며 언약을 지키겠다고 맹세했다. 언약을 어길 경우 그 짐승과 같은 심판을 받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

이어서 사무엘하 9장에 등장하는 므비보셋의 이야기를 통해 언약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설명했다.

므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이자 요나단의 아들이었다. 그는 왕위에 오를 가능성이 있었지만, 사울과 요나단이 죽고 왕조가 바뀌는 과정에서 두 다리를 다쳤다. 이후 다윗을 두려워하며 살아갔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어서 "므비보셋은 다윗 앞에 나아가면서 자신이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 왕조가 바뀌면 이전 왕가의 사람들이 위협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윗은 므비보셋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다윗은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므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이 있는지 찾았고, 므비보셋을 불러 사울의 모든 재산을 돌려주며 자신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도록 했다.

그는 "다윗은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기억했다. 므비보셋을 죽이거나 내쫓는 대신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왕의 식탁으로 불렀다. 이것이 언약의 아름다움"이라고 했다.

이어 므비보셋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 당시 겪었던 일을 설명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났을 때 므비보셋의 종 시바는 므비보셋이 왕위를 되찾으려 한다는 취지로 다윗에게 보고했다. 그러나 이후 다윗이 돌아왔을 때 므비보셋은 자신이 다윗을 위해 슬퍼하며 지냈다고 설명했다.

뉴먼 목사는 이 사건을 통해 언약 관계가 위기 속에서도 어떻게 드러나는지 살펴봤다. 그는 "므비보셋은 왕이 건강하게 돌아온 것으로 만족한다. 자신이 무엇을 얻느냐보다 왕의 안전과 회복을 중요하게 여겼다. 언약 관계는 서로 사랑하고 보호하며 신실하게 지키는 관계"라고 설명했다.

뉴먼 목사는 다윗과 므비보셋의 이야기가 인간 사이의 관계를 넘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간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으며, 언약을 깨뜨린 인간은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고 말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버리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언약을 이루셨다고 설명했다.

뉴먼 목사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켰느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언약을 깨뜨렸으며, 그에 따른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과 피로 새 언약을 이루셨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도 하나님께서 친히 그 사이를 지나가셨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는 인간의 구원이 인간 자신의 능력이나 신실함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뉴먼 목사는 설교를 마무리하며 신앙생활의 초점은 무엇을 더 많이 할 것인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하나 되는 관계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나도 주님을 받아들이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내 발길은 주님께서 가시는 길이 되며, 내 혀는 주님의 혀가 되는 것이다. 주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끊임없이 살펴야 한다고 권면했다. 성경은 인간의 생각과 판단을 넘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도록 이끌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친다는 것이다.

뉴먼 목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주셨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한다. 성실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주님 곁으로 불러주시며 그 안에 거하게 해주시기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마스 맹 기자

성가대 지휘자 마스터 클래스

11월 14일(토) 1시-5시
월드미션대 6층 음악과 강의실

43년간 교회 음악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과 22년간 지휘자들을 양성하며 축적한 교육 노하우를 나누는 특별한 배움의 장이 열린다.

윤임상 교수 지휘 마스터 클래스는 교회 성가대 지휘자들을 대상으로 11월 14일(토) 오후 1시-5시까지 월드미션대학교 6층 음악과 강의실에서 진행된다.

이번 마스터 클래스에서는 성가대 지휘 기술과 음악적 해석과 기본 바톤 테크닉, 스코어 스터디, 리허설 테크닉, 합창을 위한 오케스트라 지휘 기술 등을 다룬다.

특히 지휘 실습에 참여할 참가자 10명을 선착순으로 선정한다. 실습 참가자는 자신의 테크닉과 음악적 해석을 점검하고, 전문적인 지도와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 나머지 참가자도 참관을 통해 교육 과정과 실제 지휘 지도를 배울 수 있다.

윤임상 교수는 LAKAM Philharmonic Orchestra & Chorale의 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이며, 월드미션대학교 음악과장 겸 지휘과 교수로서 국내외 지휘자들을 양성해 왔다.

문의: 213-388-1000 (내선 25 또는 26), 213-239-3573

'신의 악단' 아시안 필름 페스티벌서 특별 상영

영화 '신의 악단(Choir of God)'이 오는 11월 15일(주일) 오후 6시 컬버시티에서 열리는 제12회 아시안 월드 필름 페스티벌에서 특별 상영된다.

'신의 악단'은 국제사회의 지원을 얻기 위해 가짜 찬양단을 구성하라는 임무를 맡은 북한 보안 요원의 이야기를 그린 뮤지컬 영화다. 1994년 평양 '칠골교회 사건'을 모티브로 삼았다.

'신의 악단'은 한국에서 흥행을 거뒀으며, 앞서 LA 지역 일부 교회에서도 상영돼 한인 교계에 소개된 바 있다. 이번 영화제 상영을 통해 교회 공동체를 넘어 일반 관객들에게도 작품을 선보이게 된다.



올해 아시안 월드 필름 페스티벌 상영작에는 한국 작품들도 포함됐다. 이창동 감독의 '가능한 사랑(Possible Love)'과 '블루피시(Bluefish)'가 각각 특별 상영 및 경쟁 부문에 선정됐으며, '신의 악단'도 한국 영화 집중 조명 프로그램에서 소개된다.

영화제 및 상영 관련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www.asianworldfilmfest.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소년 음악단체 CAUSE 11월 14일 자선 음악회 개최

캘리포니아 청소년들로 구성된 비영리 음악단체 'CAUSE(California Arts Student Ensemble.대표 및 상임 지휘자 한은혜)'가 11월 14일(토) 오후 4시 30분 세리토스 미션 교회(Cerritos Mission Church, 12413 195th St., Cerritos, CA 90703)에서 첫 자선 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번 음악회는 멕시코 제이콥스 웰 선교센터(Jacob's Well Mission Center)건립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CAUSE 소속 학생 리더십과 자원봉사자, 교사로 구성된 팀은 온라인을 통해 멕시코 현지 어린이들에게 영어, 수학, 리코더를 가르치며 학업과 음악 교육을 지원해 왔으며, 이러한 활동이 이번 후원 음악회로 이어졌다.

지난해 9 월 창단된 CAUSE 는 '차세대 육성'과 '커뮤니티 간 관계 증진'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학생들이 음악적 재능을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이웃을 섬기며 봉사 정신과 리더십을 키워가는 공동체다. 창단 이후 '어흥(Roar) 페스티벌', 남가주 음악 협회의 아프리카 우물파기 후원 음악회, '더 기빙(The Giving) 컨퍼런스 & 콘서트' 등 다수의 무대에 참여했다.

또한 양로원 및 UCI 메디컬 센터 방문 공연, 참전 영웅을 기리는 한국미국 국가 연주, 조이어스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 한 오렌지 카운티 어린이 병원(CHOC) 후원 음악회 등 지역 사회를 위한 연주 봉사로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캘리포니아 청소년 오케스트라 CAUSE. ⓒ CAUSE 제공

문선영의 머니토크 11월 재정 세미나

유튜브 채널 '문선영의 머니토크'가 11월 11일부터 30일까지 로스앤젤레스(LA), 라팔마, 샌디에이고와 온라인에서 총 7차례 재정 세미나를 연다.

이번 세미나는 은퇴자금 마련과 자녀를 위한 장기 저축, 30·40대의 저축 및 투자 선택 등을 다룬다.

첫 일정은 11일(수) 오후 6시 LA 오피스에서 열리는 부동산 에이전트 대상 비공개 세미나다.

19일(목) 오전 11시 샌디에이고 오피스에서는 부모의 은퇴 준비와 자녀의 저축 습관을 주제로 장기 저축에 복리를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20일(금) 오후 7시 LA 오피스에서 열리는 30·40대 대상 세미나에서는 Roth IRA, IRA, 저축성 생명보험, 주식 투자 등 재정 목표에 따라 고려할 수 있는 선택지를 다룬다.

은행 정기예금(CD)과 애뉴이티(연금보험)를 주제로 한 세미나는 13일(금) 오후 6시 라팔마, 21일(토) 오후 6시 샌디에이고, 25일(수) 오전 10시 LA 오피스에서 각각 열린다. 단리와 복리의 차이, 물가 상승이 저축의 구매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살펴본다. 마지막 일정인 30일(수) 오후 8시에는 줌(Zoom)으로 재정 전문 에이전트 모집 설명회가 열린다.

LA 오피스: 3435 Wilshire Blvd., 14F, Los Angeles, CA
라팔마 오피스: 6 Centerpointe Dr., 737, La Palma, CA
참가 문의: 626-827-9599
symoonmoneytalk@gmail.com

김정오 목사 "탐심은 거짓을 낳고, 몰락으로 이어진다"

한국교회에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새벽예배. 한국교회 부흥의 첫 번째 원동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07년 평양대부흥운동 당시 길선주 목사가 시작한 이래, 한국 교회의 영적 부흥과 성장을 이끄는 원동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기독일보는 동부장로교회 새벽예배에 참석하고 김정오 목사를 만났다.

동부장로교회 김정오 목사는 24일 새벽예배에서 열왕기하 5장 19~27절을 본문으로 '특권에서의 몰락'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며, 탐심과 거짓이 한 사람의 신앙과 삶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설명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목사는 엘리사 선지자의 수석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나아만 장군의 치유 이후 탐욕에 사로잡혀 거짓말을 하고 결국 심판을 받게 된 사건을 통해, 신앙의 연륜이나 직분이 영적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성도들이 자신의 내면을 살피며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지, 아니면 세상의 욕망과 자신의 생각이 자리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김정오 목사(동부장로교회). ⓒ 기독일보

탐심은 하나님보다 세상의 소유를 앞세우게 한다

김 목사는 게하시의 몰락을 가져온 첫 번째 원인으로 탐심을 꼽았다. 나아만은 엘리사의 말을 따라 요단강에서 몸을 씻은 뒤 나병이 치유되자 감사의 표시로 예물을 바치려 했지만, 엘리사는 이를 거절했다. 그러나 게하시는 나아만이 돌아간 뒤에도 물질을 얻고자 뒤쫓아갔다.

김 목사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며, 물질 자체보다 그것을 향한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했다. 물질을 통해 만족과 존재감을 얻으려는 마음이 하나님보다 세상의 소유를 앞세우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목사는 "내 안에 과연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내 마음의 결정과 생각을 다스리고 계시는지, 아니면 내 생각대로 결정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목사는 게하시가 탐욕을 채우기 위해 거짓을 선택했다고 했다. 게하시는 엘리사의 이름을 내세워 나아만에게 선지자의 제자들이 찾아왔다는 거짓말을 하고, 은 두 달란트와 옷 두 벌을 받아 자신의 집에 감췄다. 엘리사가 예물을 거절했음에도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을 이용했다.

김 목사는 "거짓말이 길어지면 거짓 행동이 되고, 거짓 삶이 된다"고 했다. 욕망을 채우기 위해 시작한 거짓말은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한 또 다른 거짓말로 이어지고, 결국 삶 전체를 거짓으로 물들일 수 있다.

게하시는 엘리사 앞에서도 자신의 행적을 숨기려 했지만, 엘리사는 그가 어디에 다녀왔는지 알고 있었다. 김 목사는 "하나님을 속이지 못한다. 사람이 자신의 죄를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에베소서 4장 25절의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를 언급하며, 성도들이 서로 진실하게 대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요한일서 1장 9절를 바탕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죄를 자백하는 삶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게하시의 죄가 결국 심판으로 이어졌다고 했다.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나아만의 나병이 그에게 옮겨갈 것이라고 선언했고 게하시는 심판을 받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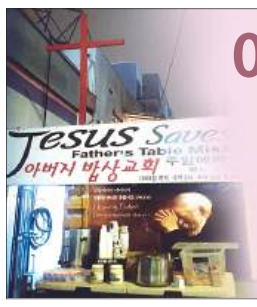
김 목사는 한 사람의 죄가 당사자에게만 머무르지 않고 가정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은 사람이 탐욕과 거짓에 빠지면 공동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구역장과 집사, 장로 등 교회 안에서 책임을 맡은 성도들을 언급하며, "신앙생활을 오래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김 목사는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말씀을 상기시키며,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을 심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다.

설교를 마무리하며 성도들이 자신의 내면에 탐심과 교만, 세상적인 야망이 자리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했다.

토마스 맹 기자



아버지 밥상교회(홈리스미션)
홈리스 영혼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홈리스 사역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차량을 도네이션해 주세요.)
무디 고 목사 T.(213)364-7289
2551 W. Olympic Blvd. LA, CA 90006
9030 Duncan Rd. Victorville CA 9239
34191 Harvard rd Newberry springs ca 92384

월서 JAY PARK 종합보험
WILSHIRE JAY PARK INSURANCE AGENCY, INC.
40년 보험 전문인
JAY PARK이 자신있게 소개하는
자동차, 사업체, 메디케어 보험
CA ins. Lic#OC84280
(213) 380-9801
2975 Wilshire Blvd., Suite 506
Los Angeles, CA 90010


PRESBYTERIAN CHURCH (USA)
샌디에고
한인연합 장로교회
담임 목사 청빙 공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교회를 섬길 담임 목사님을 청빙합니다.

1 자격 요건
1) 교단 (PCUSA)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에 결격 사유가 없는 분
2) 정규 신학대학원 목회학 (M. Div)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3) 안수 후 담임목사 및 부목사 5년 이상의 이민 목회 경험이 있는 분
4) 미국 시민자 및 영주권자 (합법적으로 거주가 가능하신 분)
5) 한어/영어 사역 가능하신 분

2 제출 서류
1) 이력서 (최근 사진 첨부)
2) 최종 학력 증명서
3) 목사 안수 증명서
4) 자기소개 (신앙 고백, 목회 철학, 목회 계획서, 가족 소개, 가족 사진 포함)
5) 최근 설교 2 편, 15-20분 (YouTube link, MP4, or MOV for iPhone user)과 자기 소개 영상 2분 이상
6) 추천서 2 통 (목회자, 지인 등) - 추천인의 서명, 전화번호, 이메일 포함

3 제출 방법
1) 제출 기간: 2026년 11월 21일까지
모든 서류를 PDF로 이메일을 받습니다
2) 이메일: SDKUPC.PNC@gmail.com
3) 1차 서류 심사를 통과한 분께는 개별적으로 통지해 드립니다
4) 부임 시기: 01/01/2027

4 기타 사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고, 청빙을 위한 용도로만 쓰이며, 청빙 절차 종료 후 즉시 폐기됩니다

샌디에고 한인연합 장로교회 | San Diego Korean United Presbyterian Church (PCUSA) | www.sdkupc.com

센터메디컬그룹

알파카 조끼 한 벌
따뜻함 한가득

가을 맞이 알파카 조끼 무료 나눔 행사

일시
2026. 11. 12 (목)
오전 9시 반부터 소진 될 때까지

대상
만 65세 이상 시니어
(선착순 300명)

장소
N Magnolia Ave / W La Palma Ave
1035 N Magnolia Ave
Anaheim, CA 92801

문의 연락
(888) 847 - 3098 오전 9시 - 오후 5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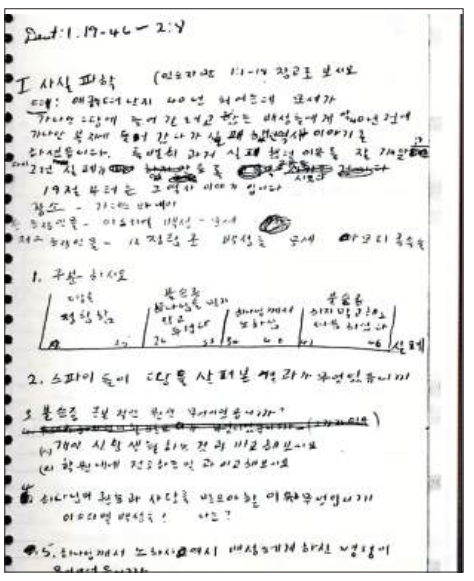
사랑을 담아
준비한 특별한 선물

“한 알의 밀알로 헌신” UBF 배사라 선교사 천국환송예배

1955년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로 한국에 파송…고(故) 이사무엘(이창우) 선교사와 UBF 창립



대학생성경읽기선교회(UBF) 공동설립자 배사라 선교사의 천국환송예배가 한국교회 100주년기념관 강당에서 거행됐다. ⓒ 유튜브 캡쳐


배사라 선교사의 성경연구 노트. 말씀을 한국인의 정서로 깨닫기 위해 한국어로 연구했다. ⓒ UBF 역사관

대학생성경읽기선교회(UBF) 공동설립자 배사라 선교사의 천국환송예배가 10월 31일 오후 서울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강당에서 거행됐다. 참석자들은 한국 청년들과 함께 살며 성경을 가르치고 세계선교에 헌신한 고인의 삶을 돌아보며, 그 신앙과 사랑을 다음 세대에 이어갈 것을 다짐했다.

이날 천국환송예배는 묵도와 찬송, 대표기도로 시작했다. 대표기도에서는 전쟁 직후 한국을 찾아 청년들을 섬긴 고인의 헌신에 감사하고, 국내외 선교사들의 안전과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 간구했다.

참석자들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요한복음 12장 24절을 함께 읽었다. 이어 UBF 중창단이 특송하며 고인을 추모했다.

말씀을 전한 한국 UBF 대표 김느헤미야 목자는 배 선교사를 예수님을 사랑하고 한 사람을 끝까지 돌보며 말씀을 가르친 인물로 기억했다. 그는 고인의 삶을 통해 한 알의 밀알과 같은 헌신의 의미를 배우자고 권면했다.

◈ “희생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얻었습니다”

김 목자는 배 선교사가 헌신적인 삶의 비결을 묻는 질문에 “저는 제가 희생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저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라고 답했다는 일화를 소개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희생과 포기로 보였던 삶을 고인은 예수님을 얻은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는 설명이다.

이어 한국에 온 초기 고아원과 결핵병원을 방문하고, 병들고 소외된 이들을 돌본 사역을 전했다. 여성들에게 성경과 자립에 필요한 기술을 가르쳤던 일과 제자들이 건넨 선물을 오랫동안 간직했던 모습도 소개했다.

김 목자는 고인이 한국어로 성경을 연구하며 남긴 노트를 언급했다. 한국인의 언어와 정서로 말씀을 전하려 애썼으며,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직접 찾아가 돌봤다고 말했다. 고인이 건물보다 캠퍼스 현장에서 사람을 만나 전도하는 일을 강조했던 기억도 나눴다.

또한 배 선교사가 자신의 사역에 관한 소감을 요청받았을 때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답했다고 회고했다. 김 목자는 고인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세계선교에 대해서는 큰 비전을 품었다며, 한 사람을 사랑하는 섬김과 선교의 사명을 함께 이어가자고 강조했다.

◈약력 보고 · 육성 영상으로 돌아본 성경교육과 세계선교

설교 후에는 김모세 목자가 고인의 약력을 보고했다. 미국에서의 성장과 교육, 한국 선교사 부임, 대학생 성경공부 사역과 UBF 공동설립, 시카고를 거점으로 한 세계선교 활동 등을 차례로 소개했다.

이어 2002년과 2006년 세계선교보고대회에서 배 선교사가 전한 메시지를 편집한 영상이 상영됐다. 영상 속 고인은 성도들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며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선교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명령과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함께 언급했다. 이웃과 원수,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자신의 행복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전했다.

◈ “문을 열고 기다리던 목자” … 제자들이 전한 사랑의 기억

추도사는 전요한·이사무엘·김헬렌 목자가 차례로 전했다. 전요한 목자는 대학생 시절 배 선교사를 만나 성경을 공부했던 경험을 나눴다. 한국 학생들과 같은 음식을 먹고 연탄을 때는 온돌방에서 생활하며 말씀을 가르친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회고했다.

전 목자는 고인이 학생부터 사역의 책임을 맡은 이들까지 모두 따뜻하게 맞아들였다고 말했다. 시카고에서도 사람들이 부담 없이 찾아올 수 있도록 집의 문을 열어뒀으며, 자신이 세계대표의 직무를 감당할 때에도 말씀과 기도로 도왔다고 전했다.

이사무엘 목자는 방황하던 시절 직장까지 찾아온 배 선교사의 사랑을 기억했다. 고인의 밝고 따뜻한 미소에 다시 성경공부를 시작했다며, 본문을 자세히 살피고 스스로 말씀을 깨닫도록 인내하며 도와준 가르침을 소개했다.

김헬렌 목자는 배 선교사를 자신의 ‘영적 어머니’로 추모했다. 고인이 머물던 작은 방은 학생들이 쉬고 고민을 나누는 공간이었으며, 밤낮으로 이야기를 들어주고 상담을 마칠 때마다 “우리 기도합시다”라며 함께 기도했다고 회고했다.

김 목자는 고인이 성경 본문을 관찰하고 의미를 살핀 뒤 삶에 적용하도록 가르쳤다고 설명했다. 학생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성경을 연구하며 다른 이들을 가르치도록 이끈 제자 양육의 유산에 감사를 전했다.

◈추모시 ‘전서구’ 낭독… 다음 세대에 밀알의 삶 전하기로

추도사에 이어 이다니엘 목자가 추모시 ‘전서구’를 낭독했다. 시에는 한국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고, 누구에게나 문을 열어 말씀과 기도로 섬겼던 배 선교사의 모습이 담겼다. 참석자들은 찬송가 452장을 함께 부른 뒤 기도제목을 나눴다. 김느헤미야 목자는 고인의 삶과 정신이 다음 세대에도 이어지도록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11월 7일 미국 시카고 지역에서 열릴 천국환송예배 준비와 국내외 선교사들의 건강·안전을 위한 기도도 당부했다.

예배는 참석자들이 함께 일어나 “성서한국 세계선교 장막터를 넓혀라”를 외친 뒤 두 사람씩 기도하며 마쳤다.

한편, 고인의 추모식은 11월 4일부터 6일까지 시카고 UBF 센터에서 진행됐다. 추도예배는 11월 7일(토) 오전 9시-11시까지 일리노이 주 오크 브룩에 있는 크라이스트교회(501 Oak Brook Road, Oak Brook, IL 60523)에서 거행되며, 이후 리지우드 메모리얼 파크(9900 N. Milwaukee Ave., Des Plaines, IL 60016)에서 장례식이 거행된다. (자세한 사항 웹사이트 참고: ubf.org/)

배사라 선교사(Sarah Barry)는 1930년 1월 22일 미국 미시시피주 베노이트에서 태어났다. 1955년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로 한국에 와 전도와 성경교육에 힘썼으며, 1961년 이창우(이사무엘) 선교사와 함께 광주에서 UBF 사역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의 대학생 사역을 개척하고 1977년부터 시카고를 거점으로 세계선교를 섬겼으며, 2002~2006년 UBF 세계대표를 역임했다. 지난 10월 18일 미국 시카고에서 향년 96세에 소천했다.

다니엘 최 기자

얼바인 온누리 창립 기념 특별 기도회

얼바인 온누리교회(박신웅 목사)는 오는 11월 9일부터 14일까지(월-토) 오전 5시 30분, 6시(토)에 창립 기념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개최한다.

월-이은상 목사(세미한교회), 화-이혜진 목사(아틀란타 벧엘교회), 수-박형일 목사(토론토 밀알교회), 목-김바나바 목사(퀸즈 한인교회), 금-하성진 목사(벨뷰 사랑의교회), 토-박신웅 목사가 말씀을 전한다.

11월 8일(주일)에는 와싱턴 중앙장로교회 류응렬 목사가 창립기념 주일예배에서 메시지를 전한다.

기독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고문
고승희, 김영길, 김재성, 김중언, 김한요, 류종길, 민종기, 박기호, 송정명, 신성욱, 이상명, 이종용, 임성진, 정우성, 진유철, 한기홍

자문위원
강태광, 고광선, 고창현, 구경모, 구봉주, 국윤권, 김종규, 류응렬, 박은성, 박일서, 오명찬, 우영화, 최현규, 한현종, 써니김

■발 행 인 : 이인규 ■이 사 장 : 폴 킴
■편집국장 : 맹창현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 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213) 739 - 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주 소 : 3055 Wilshire Blvd. #480, LA, CA 90010

故 박한나 사모 (Park, Hannah 박상란)

1934년 8월 18일 – 2026년 10월 14일 (향년 92세)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딸 박한나 사모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기에 삼가 부고를 전합니다.



[천국환송예배]
일시: 2026년 11월 7일(토) 11am
장소: 한국장의사 (2045 W. Washington Blvd, L.A., CA 90018)

[하관예배]
일시: 2026년 11월 7일(토) 1pm
장소: Rose Hills Memorial Park (3888 S. Workman Mill Rd, Whittier, CA 90601)

[유가족]
남편: 박광순(소천)
장남: 박준호/며느리: 박지원(Jaye), 손자: 박정훈(Justin)/손자며느리: 박희라(Sharon), 증손자: 박현우(Seth)
장녀: 이은경/사위: 이재훈(소천) 손자: 이원창(Daniel)/손자며느리: 공윤희(Kate)
손녀: 이수진(Angela)/손녀사위: 여명찬, 증손자: 김은혁(Ryan), 증손녀: 김은솔(Evelyn)
손녀: 이혜진(Esther)/손녀사위: 임창조, 증손자: 임예준(Isaiah)
차녀: 민미경/사위: 민병진(John), 손자: 민현기(Joseph), 민훈기(Daniel)
차남: 박성호/며느리: 박진원, 손녀: 박고은(Phoebe)

장례관련 문의전화 : 310-436-5817

교회 · 학교 · 커머셜 빌딩 · 비영리단체를 위한
특별한 기회!

비영리단체 및 교회도 태양광 설치비의 최대 40%를 현금으로 돌려받으세요!

이제, 태양광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연방정부의 DirectPay프로그램으로 교회도 현금환급이 가능합니다

DIRECT PAY PROGRAM 핵심 혜택

최대 40% 현금 환급
설치 비용의 최대 40%를 현금으로 직접 지급

세금이 없어도 OK!
비영리단체도 세액공제 혜택을 현금으로 수령

전기요금 절감
장기적인 에너지 비용 절감으로 운영 예산 부담 감소

친환경 & ESG 실천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지역사회에 긍적적 영향

2027년말
비영리단체 지원 인센티브가 종료!
지금 상담받고 최대 40% 절감혜택을 확인하세요.

예를 들면,
10만 불짜리 솔라 공사를
실제 6만 불에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비용은 -40% 다이어트, 효과는 100% 그대로!

계약체결·설치중인 교회



YNC 나성영락교회
YOUNG NAK CHURCH OF L.A.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Fax. 323-227-0718
https://youngnak.com/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대흥장로교회
Dae Hueng Presbyterian Church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el. 310-719-2244
http://www.dkpc.org



코너스토교회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el. 310-530-4040
http://www.cornerstonetv.com

BTS SOLAR DESIGN
비영리단체를 위한 맞춤형 태양광 솔루션

213-500-8000

btssolardesign@gmail.com www.btssolardesign.com

☑ 전문 엔지니어 상담 ☑ 맞춤형 설계 & 시공 ☑ 정부 인센티브 최대 활용 ☑ 믿을 수 있는 사후 관리

전 세계 기독교인 4억 이상, '종교 자유 침해 심각 국가' 거주

조사 대상 18개국 중 10+개국서 박해 악화
2억 이상은 직접 노출

가톨릭 원조단체인 '에이드 투 더 처치 인 니드'(Aid to the Church in Need, 이하 ACN)가 전 세계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와 종교 자유 침해가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 세계 4억 1,300만 명의 기독교인이 종교 자유 침해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CN이 10월 27일 발표한 '박해받고 잊힌 사람들?'(Persecuted and Forgotten? A Report on Christians Oppressed for Their Faith 2024-2026)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18개국 가운데 55%에서 기독교인의 상황이 악화됐으며, 전반적으로 상황이 개선된 국가는 한 곳도 없었다. 보고서는 극단주의 무장세력의 폭력, 권위주의 정부의 종교 통제, 종교민족주의의 확산이 기독교 공동체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으며,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는 분쟁과 박해로 고향을 떠나는 기독교인들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보고서는 2024년 8월부터 2026년 6월까지의 상황을 다뤘으며, 종교 자유 침해가 특히 심각한 18개국을 대상으로 국가별·지역별 상황과 현지 기독교 공동체의 증언,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약 4억 1,300만 명의 기독교인이 종교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발생하는 국가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약 2억 2,000만 명은 박해에 직접 노출돼 있다.

아프리카, 무장세력의 공격과 강제 이주 확산

보고서는 기독교인에 대한 극단주의 폭력이 심각한 지역으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를 지목했다. 2026년 세계테러리즘지수(Global Terrorism Index)에서 상위 10개국 가운데 6개국(부르키나파소, 니제르, 나이지리아, 말리, 소말리아, 콩고민주공화국)이 아프리카에 속한다.

나이지리아에서는 무장세력의 공격으로 기독교인 마을들이 피해를 입고 주민들이 집을 떠나고 있다. 보고서는 나이지리아에서 수백만 명의 기독교인이 국내 실향민 가운데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특히 중부에서는 무장세력과 급진화된 풀라니 유목민 세력의 공격으로 마을들이 파괴되고 주민들의 이주가 이어졌다. 보고서는 베누에주 예레와타에서 발생한 학살도 사례로 들었다. 당시 하룻밤 사이 기독교인 200명 이상이 살해됐으며, 그 중 일부는 마체테에 의해, 일부는 잠을 자던 중 불에 타 숨진 것으로 보고됐다.

보고서는 부르키나파소에서도 이슬람 무장세력의 활동으로 기독교 공동체가 심각한 위협에 놓였다고 밝혔다. 알카에다와 연계된 무장단체 자마트 누스라트 알이슬람 왈무슬리민(JNIM) 등이 활동하는 가운데, 무장 이슬람 세력이 국토의 최소 40%를 장악한 것으로 보고서는 추산했다. 누나교구에서는 남성 26명이 목이 베여 살해된 사건이 보고됐으며, 한 교구에서만 12개월 동안 2,000명이 피란한 사례도 소개됐다.

말리에서는 일부 기독교 공동체가 이슬람식 복장과 사회 규범을 따르도록 강요받고 있으며, 살해 및 강제 이주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모잠비크 북부 카보델가두주에서는 2017년부터 이어진 이슬람 극단주의 반란으로 지역 공동체가 큰 피해를 입었다. 보고서는 이슬람국가(IS)와 연계된 무장세력이 샤리아 율법에 따른 통치체제를 세우려 하고 있으며, 기독교인 살해와 참수, 여성과 아동 납치, 교회와 주택 파괴 등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ACN 국제본부의 발표는 2017년 이후 이 지역에서 살해된 기독교인을 약 1,000명으로 집계했다.

보고서는 "아프리카에서 계속되는 폭력과 이주가 장기적으로 해당 지역의 종교 구성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며 "종교적 이유가 분쟁의 유일한 원인은 아니지만, 신앙을 이유로 표적이 된 공동체가 집단적으로 고향을 떠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에는 박해를 경험한 기독교인들의 증언도 담겼다. 나이지리아 북부 출신의 솔로몬 아코(33)는 무장세력이 자신의 마을을 공격했을 때 납치됐다. 납치범들은 인질들에게 개종을 요구했으며, 그들이 이를 거부하자 폭행했다.

아코는 ACN에 당시 상황을 전하며 "그들은 우리를 채찍으로 때렸고, 우리 다리를 쇠사슬로 묶었다"며 "다른 인질들과 함께 고문을 당했으며, 몇 시간 동안 목까지 차오르는 차가운 물속에 갇혀 신앙을 버리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위협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란 기독교인 체포 2배 급증... 니카라과는 교회 기관 압박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일부 국가에서는 무장 공격이 아닌 정부의 통제와 종교 활동 제한이 기독교인에 대한 압박의 주요 형태로 나타났다.

이란에서는 보고서가 다룬 12개월 동안 기독교인 체포 건수가 거의 두 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에서는 종교 활동을 국가의 정치적·문화적 기준에 맞추도록 하는 이른바 '종교의 중국화' 정책이 지속되고, 지하교회와 독립적인 종교 공동체에 대한 감시와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종교 지도자와 신자들은 예배와 종교 교육, 온라인 종교 콘텐츠 활동 등에 제약을 받고 있으며, 정부 정책을 따르지 않는 공동체는 체포와 구금, 예배 장소 철거 등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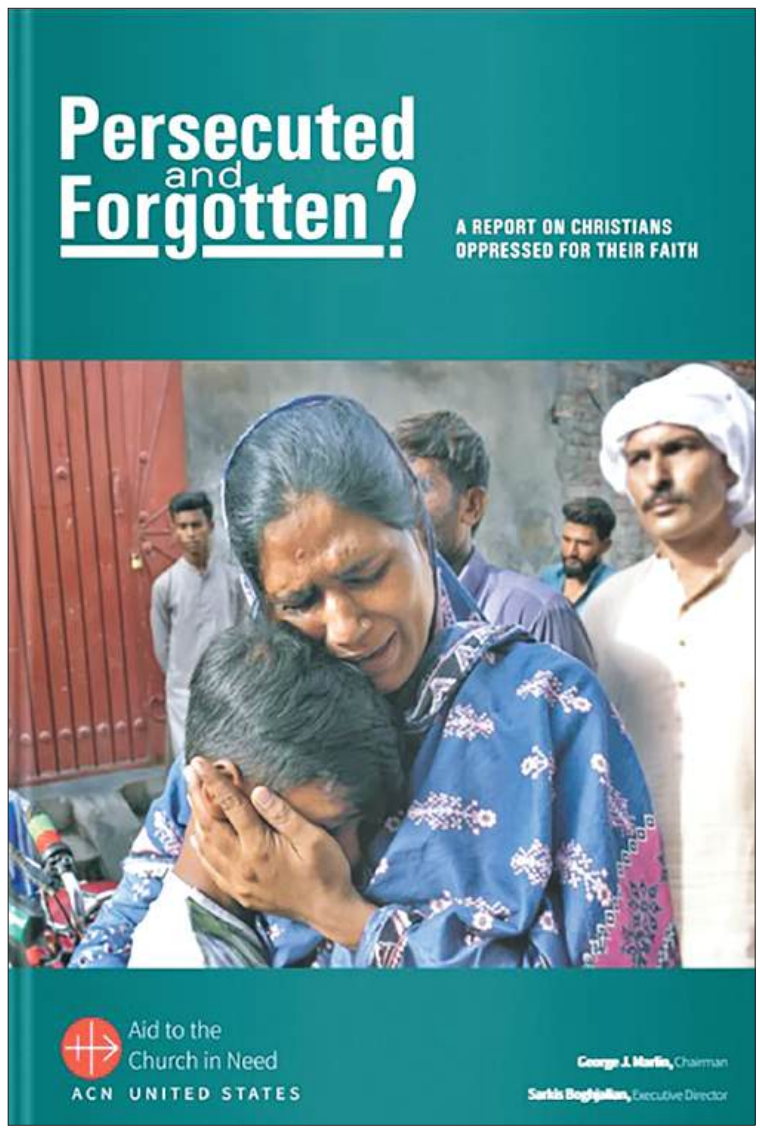
중남미 니카라과에서는 다니엘 오르테가 정부와 가톨릭교회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보고서는 성직자 체포와 추방, 사제 서품 제한, 교회 기관과 재산 압류 등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당국은 성경을 소지한 사람들의 입국도 막은 것으로 보고됐다. 니카라과 사례는 종교 공동체에 대한 국가의 압박이 교회의 제도적 운영과 종교 지도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인도 반기독교 폭력 700건 넘어... 종교민족주의와 개종금지법 논란

보고서는 아시아 일부 지역에서 종교민족주의가 기독교인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키우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도에서는 2025년 한 해 동안 반기독교 폭력 사건이 700건 넘게 기록됐다. 보고서는 힌두 민족주의 성향의 수사와 사회적 적대감이 기독교인에 대한 공격이 발생하는 환경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또한 주 정부 차원에서 확대된 개종금지법이 종교적 소수자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기독교 단체들의 우려도 소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에서는 예배와 종교의식이 방해받고 신자들이 신체적 공격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기독교 가정이 사망한 가족을 매장할 권리를 인정받지 못해 이미 묻힌 시신을 다시 파내야 했던 사례도 보고됐다.



▲보고서 표지. © ACN

파키스탄에서는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 소수자 출신의 미성년 여성들이 납치된 뒤 강제 개종과 결혼을 강요받는 문제가 제기됐다.

시리아 기독교 공동체 미래 불확실... 다마스쿠스 교회 테러로 25명 사망

중동에서는 기독교의 역사적 발상지에 해당되는 지역에서 오랜 기독교 공동체의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시리아에서는 2024년 12월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이 붕괴하고 아흐메드 알샤라가 권력을 잡은 이후에도 기독교인들의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 보고서는 수년간의 이주로 이미 약화된 시리아 기독교 공동체가 새로운 불안정과 위협에 직면했다고 전했다. 과도정부가 소수 종교 보호를 약속했지만 공공생활에서 이슬람의 영향력이 커지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2025년 6월 22일 다마스쿠스 외곽 두웨일라 지역의 마리아스 그리스정교회에서는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했다. 이 공격으로 25명이 사망하고 60명 이상이 다쳤다.

니카라과와 함께 중동의 사례들은 정치적 격변과 무력 충돌, 국가 통제 등이 종교 공동체의 존속과 종교 활동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박해에 무관심이 더해져서는 안 된다"

ACN 보고서는 기독교인 박해가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국제사회에서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하는 문제도 지적했다.

바티칸의 유엔 상주 옵서버인 에토레 발레스트레로 대주교는 "반기독교 적대 행위가 국제 언론에서 지나치게 축소되거나 무시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그는 "나이지리아나 시리아에서 교회가 공격받을 때 사건이 민족 갈등이나 토지·수자원 경쟁, 정권 교체 이후의 정치적 불안정이라는 관점에서 주로 다뤄지면서 종교적 요인이 간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민족 정체성, 정치적 불안정, 빈곤, 토지와 자원을 둘러싼 경쟁이 종교적 정체성과 겹치는 경우가 많다"며 "모든 폭력을 종교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피해자와 가해자가 신앙을 공격의 핵심 이유로 명시하는 상황에서도 종교적 차원이 충분히 다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전했다. 김진영 기자



인도네시아 선교사 3만 명 파송 선포



알루시아(ALUSIA) 의장이자 아시아복음주의연맹 사무총장인 밤방 부디잔토 박사 ⓒ CDI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지난 5세기 동안 서구 선교사들의 복음 전파를 바탕으로 성장해 온 인도네시아 교계가 선교 파송국으로의 체질 개선을 선포했다고 10월 31일 보도했다. 인도네시아 전역의 주요 교단과 선교 단체들은 오는 2033년까지 3만 명의 인도네시아 선교사를 전 세계로 파송하기 위한 범국가적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이번 선교 운동은 2023년 결성된 인도네시아 세계선교연합(ALUSIA, 이하 알루시아)이 주도하고 있다. 알루시아 의장이자 아시아복음주의연맹(AEA)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밤방 부디얀토(Bambang Budijanto) 박사는 최근 미국 뉴욕과 필라델피아를 방문해 현지 인도네시아 디아스포라 목회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알루시아 측은 전 세계에 흩어진 인도네시아 교회를 선교 전진 기지화하기 위해 해외 교단들과의 연쇄 모임을 이어가고 있다.

인도네시아에 복음이 처음 전래된 것은 1534년 말루쿠 제도에 서구 선교사가 도착하면서부터다. 알루시아가 목표로 삼은 2033년은 복음 전래 500주년을 1년 앞둔 시점이다. 부디얀토 박사는 인도네시아가 3,000만 명의 기독교 인구를 가진 복음의 수혜국으로서 타국에 영적 빚을 지고 있다며, 이제는 전 세계를 향해 복음을 전파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CDI는 인도네시아 교회가 선교 강국으로 전환하는 배경에는 수십 년간 축적된 영적 부흥과 기도 운동이 자리 잡고 있다고 밝혔다. 1965년 티모르섬 소에(Soe) 지역의 부흥 운동을 시작으로 1970년대 보르네오 다약족 부흥, 1980년대 대도시 기도 운동으로 이어진 대각성은 인도네시아 전역으로 확산됐다. 1984년 당시 자카르타 한 도시에만 5,000개 이상의 기도 모임이 조직되기도 했다.

그러나 부흥과 함께 시련도 뒤따랐다. 1980년대와 1990년대를 거치며 반(反)기독교 폭력 사태가 발생했고, 500개 이상의 성전이 파괴되는 등 인명 피해가 잇따랐다. 이러한 박해와 고난은 역설적으로 분열되어 있던 인도네시아 교단들이 하나로 묶이는 계기가 됐다.

교파를 초월한 연합은 전국적인 기도 운동으로 이어졌다. 1991년 시작된 연합 기도 운동은 현재 인도네시아 534개 도시에서 24시간 운영되는 '기도의 탑(towers of prayer)'으로 자리 잡았으며, 이 같은 기도 체제는 인근 국가와 글로벌 기도 네트워크로 확대됐다. 교계 지도자들은 이러한 지속적인 기도 운동을 인도네시아 교회가 전 세계 신앙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 자산으로 평가하고 있다.

현재 인도네시아의 해외 선교사 수는 약 800명 수준으로, 이들 중 절반 이상은 해외 거주 인도네시아 동포를 대상으로 사역하고 있다.

다니엘 최 기자

아프리카 기독교 박해 심화 나이지리아 실향민 100만 명 발생



나이지리아 중부 미들벨트 지역의 기독교인 밀집 마을을 겨냥한 공격은 2024년 이후 전국적으로 국내 실향민이 350만 명을 넘어서는 데 영향을 미쳤다. ⓒ IOM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2017년 이후 모잠비크 북부에서 1,000명 이상의 기독교인이 피살되고 나이지리아 내 분쟁으로 최소 100만 명의 기독교인이 피난길에 오르는 등 전 세계적인 기독교 박해가 심화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10월 30일 보도했다.

가톨릭 구호단체 교황청 재단 '고통받는 교회 돕기(ACN)'는 최근 발표한 '박해받고 잊혀졌는가? 2024-2026' 보고서를 통해 조사 대상 18개국 중 10개국에서 기독교인의 생존 환경이 악화했다고 밝혔다. 2024년 8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진행된 조사 기간 동안 기독교 박해 상황이 개선된 국가한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을 이슬람 극단주의 폭력의 중심지로 지목하며 살해, 납치, 성전 공격, 공동체 강제 이주 사례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기독교 박해 피해가 가장 심각한 국가 중 하나인 나이지리아에서 북동부와 미들벨트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습격과 납치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미들벨트의 기독교인 마을에 대한 테러 공격으로 발생한 국내 실향민은 350만 명을 넘어섰다. 마쿠르디 교구의 윌프레드 아나그베 주교는 이 같은 폭력 사태에 대해 기독교인 공동체를 향한 조직적이고 잔혹한 인종청소라고 지적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2025년 11월 성 메리 가톨릭 학교에서 학생 253명과 임직원 12명이 집단 납치당했으며, 2026년 1월에는 카두나주 북부 교회 3곳에서 예배를 드리던 성도 177명이 무장 세력에 끌려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모잠비크 카보델가두주 역시 이슬람국가(IS) 연계 테러 세력이 이슬람 칼리프 국가 건설과 광물 자원 확보를 목표로 기독교인 공동체를 향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 2017년 10월 이후 1,000명 이상의 기독교인이 피살됐으며, 2025년 8월에는 2주 만에 약 6만 명의 실향민이 발생했다. 2025년 11월 남풀라주에서는 기독교인 4명이 살해당했고, 2026년 4월에는 민호에네 지역의 성 루이 드 몽포르 성당이 방화로 파괴됐다.

부르키나파소와 말리 등 사헬 지대에서도 극단주의 세력에 의한 종교적 통제가 강화되고 있다. 부르키나파소는 국토의 40% 이상을 무장 세력이 점령한 상태로, 2024년 기독교인 남성 26명이 개신교 교회로 끌려가 처형당했다.

다니엘 최 기자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어린이성경공부 오후 1:30
백송찬양대 주일 오후 1:15
평일 영혼의샘예배
- 화~금 오후 7:30
- 토 오후 3:00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 (562)606-2345, (424)445-807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차세대예배 오전 9:15)
3부예배(차세대예배) 오전 11:30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새벽예배 (월)온라인 Only 오전 6시
(화~토) - 오전 6:00
수요중보기도모임 온라인 오후 8시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깨우고,이민2세를책임지며,이민가정을치료하며,선교명령을순종하는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과 Elden 코너)
T. (213)386-2233

주일예배 1부: 8:30 am
주일예배 2부: 11:00 am
교육부서: 11:00 am
주일 3부: 2:00 pm(영어권)
새벽예배: 화~토(6:00 am)
수요예배: 7:00 pm
박병열 담임목사
미주평안교회
"은혜로 걸어온 50년, 비전으로 걸어갈 NEXT 50년" (시 78:4)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T. (213) 381-2202 www.mijoopeacechurch.org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0:50
청소년예배 오전 10:50
어린이예배 오전 10:50
새벽예배 오전 6:00 (화-금)
토요비전새벽예배 오전 6:3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 (323) 735-6412 / gmcchurchc.com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월-토) 오전 6:00
엘리야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1520 James M Wood Blvd, LA, CA 90015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45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수/금요예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9:3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박은성 담임목사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 (323) 227-1400 web@youngnak.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로 세움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주일1부예배 오전 7:30 본당
주일2부예배 오전 9:30 본당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본당
주일4부예배 오후 1:31 비전센터
OMC 주일학교 오전 11:30 교육관 1층
OMC 중고등부 오전 11:30 교육관 4층
OMC소망부 오전 11:30 교육관 427호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본당
주중새벽기도회 온라인(Online)
수요중보기도회 오전 10:00 본당
김지훈 담임목사
동양선교교회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323)466-1234 Email: omcoffic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주일예배 2부 오전 9:5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주일예배 4부 오후 2: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6:00
EM Worship Sunday 2:00
김일형 담임목사
새생명오아시스교회
1041 S. Oxford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730-7000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강지원 담임목사
새 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90006
T. (323) 702-6709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11:00
금요저녁기도회 오후8: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이수호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3055 Wilshire Blvd. #220., LA, CA 90010
T. (213)387-1700 olympicch@gmail.com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수요예배: 저녁 7시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라디오 방송설교
라디오서울 AM 1560
주일 아침 6시
서사라 담임목사
주님의 사랑 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 (213) 574-9400
lordslovechristianchurch@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3부예배 오후 1:00
라티노 오후 5:00
GCEM 오후 1:0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초등부 주일 오전 11:0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본당/온라인
김창섭 담임목사
세계선교교회
927 S.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
Tel. (213) 388-1927 www.wmcla.com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 유년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10:50
한국학교 오전 9: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5:30
토요새벽 오전 6:00
고광선 담임목사
한길교회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0
T.(323)735-0200 churchtheway@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0:30
토요새벽예배 새벽 6:30
EM 주일예배 오전 10:30
한현종 담임목사
LA장로교회
616 Shatto Pl. Los Angeles, CA 90005
T. (213) 407-1600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교육부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월~토) 오전 5:30
국윤권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choonghyun.org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
금요기도회 오후 7:30
김은광 목사 백승유 목사
우리가교회
성도된 우리가 교회입니다
1060 Crenshaw Blvd(2F), L A, CA 90019
T. (323)610-6989, www.woorigachurchla.org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사우스베이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3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유중고등부 예배 오전 8:4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45(화~금) / 6:20(토)
이황영 담임목사
남가주기쁨의교회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326-0300, http://rpcsc.com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토) 오전 6:00
늘푸른동산교회
17116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562) 500-9791 / evergreenhill.org

1부예배 오전 8: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김정훈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 2부 11: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중/고예배 오전 11:00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김경환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전 9:30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주일1부예배 오전 8:00 가명훈 담임목사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KM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려짐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gcc.org

주일1부 오전 7:45 수요예배 오후 7:30 고창현 담임목사
주일2부 오전 9:45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 2222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00 방상용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GRC(EM)예배 오전 11:00 (토요일) 오전 6: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세리토스선교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Step Up 하고 Step Out 하는 교회 (행 6:7)
12413 E. 195 th St. Cerritos, CA 90703
T. (562)402-2919 www.cmchome.org

주일1부예배 8:00am 주일EM예배 11:00am 정유성 담임목사
주일2부예배 9:30am 수요찬양집회 7:30pm
주일3부예배 11:15am 토요새벽예배 6:00am
주일교육부예배 11:00am 주중새벽예배(온라인) 5:30am
오렌지한인교회
643 W. Malvern Avenue, Fullerton, CA. 92832
T. (714) 871-8320 / www.okcrc.org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구봉주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장애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어대학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감사한인교회
예수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모레노밸리 예배시간: 매주 일 오후 3시 이우호 담임목사
LA 밸가든구국재단 :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CRPC 모레노밸리한인교회/LA구국재단
24725 Alessandro Blvd. Moreno Valley CA 92553
T. (954) 200-0875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지영환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예배 오후 7: 30
Youth/ College 주일오전 11:00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30 림학춘 담임목사
찬양예배 오전 11:00(수)
중보기도 오전 9:30(목)
제자성서 오전 9:30(금)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라구나힐스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7:00 성인 영어 예배 오전 9:00, 오전 11:00 김한요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00 일본어 예배 오후 1:15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00,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예배 오후 7:00 박신웅 담당목사
2부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11:15
3부 오전 11:30 한어부 오후 1:00
4부 오후 2:00 KM대학청년부 오후 2:30
얼바인온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남성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15 토요일전교인새벽기도회 오전 5:30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뤄가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rcoc.com

1부예배 오전 07:2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한기홍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09:1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20 금요성령예배 오후 0730
4부예배 오후 2:0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 예배 오후 1:30 박 훈 담임목사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함께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주일예배 1부 오전 7:45 수요여성예배 오전 10:00 김종규 담임목사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금요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11:30 새벽예배(평일) 새벽 5:30
(청장년/교육부서) (토/주일) 새벽 6:00
오렌지카운티 제일장로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714) 899-9191 / oc1church.com

1부예배 오전 8:2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주혁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주님의빛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8
T. (714)252-9191 / www. lordlight.org

주일1부예배 오전 8:00 교회학교 신용환 담임목사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아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새벽예배 화-금 오전 6:00 한글학교 주일 오후 1:00
토요새벽부흥회 토 오전 6:00
금요성령집회 오후 7:30 (매달 마지막 금요일)
주님세운교회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310) 315-4020

LA 동부 지역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우영화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전 11:40
3부예배 오전 11:40 금요성령집회 저녁 7:30(금)
EM(Holy Wave)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590-3722 www.eastsarang.org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고승희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45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화~금) 오전 5:30 구경모 담임목사
주일학교 오전 11:20 (토) 오전 6:00
영어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한빛장로교회
11608 Valley Blvd., El Monte, CA 91732
T. (626)444-0521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최원일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말씀강해 오후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 (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다수 세계 선교 지도자들, 서구 의존 벗어나 자립 선교 체제 구축



아시아 · 아프리카 · 라틴아메리카의 선교 지도자들이 싱가포르에서 열린 'COALA 4.0' ⓒ Courtesy of COALA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등 이른바 '다수 세계'의 선교 지도자들이 서구 교회에 대한 재정 및 교육 의존도를 낮추고, 현지 중심의 자립적인 선교 체제와 남남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음을 10월 29일 보도했다.

아시아·라틴아메리카·아프리카 선교 네트워크인 코알라(COALA)는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싱가포르에서 '메이저리티 월드 선교의 지속가능성과 훈련'을 주제로 제4차 대표자 회의(COALA 4.0)를 개최하고 '싱가포르 선언문(Singapore Statement)'을 발표했다. 싱가포르 세계선교센터(SCGM)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다수 세계 25개국에서 온 76명의 해외 선교 지도자와 싱가포르 현지 리더 24명 등 총 10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선언문 서문을 통해 다수 세계의 수많은 선교 지도자들이 과거 서구에서 신학 교육을 받았거나 여전히 서구 기관의 재정적·구조적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과거 서구 교회의 공헌에는 감사를 표하면서도, 단순한 표면적 변화에 그친다면 서구 기관이 다수 세계 교회와 선교 운동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단일 중심의 선교에서 벗어나 다양한 지역이 동등한 책임과 권한을 갖는 '다성적·다중 중심적 선교'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이번에 채택된 싱가포르 선언문은 지속가능성, 선교사 훈련, 남남 협력 등 3개 분야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실천 원칙을 담고 있다.

지속가능성 분야에서는 외부의 결정적인 지원 없이 현지 지도부가 스스로 자원을 조달하고 사역을 확장하는 자립형 선교 모델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정기적인 서구 재정 지원과 구조적 승인에 의존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현지 교회의 후원, 이중직 사역, 비즈니스 선교(BAM) 등 다양한 모델을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청년 지도자들이 재정적 결핍 의식과 전통적인 권력 구조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사역을 펼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선교사 훈련 분야에서는 단순한 학문적 성취보다 영성 형성과 신앙적 순종, 영적 분별력을 최우선 가치로 두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서구 기관의 학위나 브랜드 검증에 연연하던 습관을 버리고, 각 지역의 문화적·경제적 현실에 맞는 성경적이고 실천적인 훈련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총회 마지막 날인 10월 7일에는 다수 세계 선교 단체 간의 실질적인 협력을 위한 4건의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는 인도네시아 세계선교연맹(ALUSIA)과 교류 협약을 맺었으며, 싱가포르 세계선교센터(SCGM), 아프리카 국가이니셔티브 운동(MANI) 등과 함께 다자간 협력 협약도 성사시켰다. 다니엘 최 기자

인도 기독교인, 신앙 위해 고향 포기



인도 차티스가르주 칸케르 지구 반다르디기 마을에서 주민들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가정들의 처우를 결정하기 위해 모여 있다. ⓒ Area resident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인도의 한 시골 마을에서 150명이 넘는 힌두교 극단주의 폭도들이 기독교 성도 가정을 습격해 무차별 폭행하고 마을에서 쫓아낸 사건이 발생했다고 10월 30일 보도했다. 당국의 묵인과 공권력의 무관심 속에서 피해자들은 조상의 터전과 농경지를 빼앗긴 채 신앙을 지키기 위해 피난길에 올랐다.

인도 찬디가르주 캉케르 지구에 거주하는 비카스 살람과 그의 가족들은 지난 9월 21일 힌두 극단주의 무장 세력에 의해 집단 폭행을 당했다. 폭도들은 몽둥이를 들고 살람의 집에 난입해 노약자와 여성, 어린아이까지 폭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11세 어린이를 포함한 성도 4명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피해를 본 세 가구 18명의 성도들은 마을에 남은 마지막 기독교인들로, 지난 10년 동안 기독교 신앙을 지켜왔다. 주민들과 힌두 극단주의자들은 성도들에게 힌두교 개종을 요구하며 마을 배출 및 정부 보조 식량 배급 중단 등 가혹한 압박을 가해 왔다.

CDI는 폭행 당일 살람이 경찰과 관할 경찰서에 긴급 구원 요청을 보냈으나, 경찰은 출동을 지연시켰다고 밝혔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 역시 피해자들의 부상 상태를 확인했음에도 폭도들을 제지하거나 처벌하지 않고 범행을 방조했다.

병원 치료를 마치고 돌아온 성도들을 향해 지자체 행정관과 경찰 간부, 마을 이장 등 고위 관계자들이 찾아와 힌두교 개종을 강요했다. 당국자들은 토지 몰수를 담보로 개종을 압박했고, 결국 가족들의 생존을 위해 살람의 부친이 대표로 개종 서명에 응해야만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CDI는 인도에서 집권 여당의 영향력 아래 기독교인을 향한 폭력과 '가르 왑시(힌두교 복귀)'라는 명목의 강제 개종 공작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밝혔다. 기독교 박해 감시 단체인 오픈도어즈(Open Doors)의 2026년 세계 박해 순위(WWL)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는 전 세계에서 기독교 박해가 심각한 국가 12위에 올랐다.

고향에서 쫓겨난 비카스 살람은 일용직 노동자로 살아가더라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피해 가족들은 폭도들의 지속적인 위협을 피해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타 지역 도시로 피신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예정이다.

다니엘 최 기자

美 신앙 실천 감소세 멈췄나, 퓨리서치 "최근 6년간 안정적"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조사에서 미국 성인의 70%가 자신을 특정 종교에 소속된 사람이라고 응답했다. 이는 2020년의 71%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번 보고서는 퓨리서치센터의 '종교 지형 조사'(Religious Landscape Studies) 결과를 비교 분석한 것이다.

미국에서 종교를 가진다고 응답한 비율은 2007년 83%, 2014년 77%로 감소한 데 이어 2020년 71%를 기록했다. 그러나 최근 6년간의 조사에서는 종교적 정체성과 신앙 실천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미국인들이 종교를 가진다고 응답하는 비율과 매일 기도하는 비율, 종교를 삶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비율,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종교 예배에 참석하는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기도와 종교의 중요성에 대한 응답도 큰 변화가 없었다. 매일 기도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020년 48%에서 2026년 47%로 나타났다. 종교가 자신의 삶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답한 비율 역시 2020년 45%에서 2026년 44%로 소폭 감소하는 데 그쳤다.

종교 예배 참석률은 대면 참석과 온라인·TV 시청을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26년 조사에서 응답자의 34%는 지난 한 달 동안 종교 예배에 직접 참석했다고 답했다. 대면 참석뿐 아니라 온라인이나 TV를 통해 예배를 드린 경우까지 포함하면 45%였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예배당 폐쇄가 이뤄졌던 2020년에는 대면 예배 참석률이 13%에 그쳤지만, 온라인과 TV를 포함한 예배 참여율은 41%였다.

청년층에서는 종교적 부흥 가능성을 시사하는 보고와 달리, 세대별로 상반된 양상이 나타났다. 퓨리서치센터는 특히 젊은 보수 성인 남성을 중심으로 종교적 부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일부 분석과 관련해 이번 조사에서 "엇갈린 신호"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2004~2008년생으로 현재 약 18~22세인 가장 젊은 성인층은 상대적으로 높은 예배 참석률을 보였다.

반면 이보다 조금 더 나이가 많은 2000~2003년생, 약 23~26세 성인층은 기도 빈도와 종교의 중요성, 종교 소속 여부 등에서 가장 낮은 종교성을 나타냈다.

퓨리서치센터는 "가장 젊은 성인들이 성년기에 접어들면서 비교적 높은 예배 참석률을 보이는 한편, 조금 더 나이가 많은 청년층은 기도와 종교의 중요성, 종교 소속 여부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종교 지형은 지난 20여 년간 상당한 변화를 겪었다.

퓨리서치센터는 2015년 발표한 대규모 조사에서 종교가 없다고 응답하는 이른바 '종교 없음'(religious nones) 인구가 급격히 증가했다고 밝혔다.

당시 기독교는 미국에서 가장 큰 종교 집단으로 남아 있었지만,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7년 78.4%에서 2014년 70%로 감소했다.

퓨리서치센터는 당시 기독교 인구 비율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주류 개신교와 가톨릭 신자의 감소를 꼽았다. 두 종교 집단은 각각 2007년 이후 약 3%포인트 감소했으며, 복음주의 개신교의 비율도 약 1%포인트 하락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미국 내 종교 없음 인구의 증가세가 정체되거나 일부 감소하기 시작했다는 보고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청년층에서도 관찰되고 있다.

공공종교연구소(PRRI)가 2021년 발표한 미국 종교 인구 조사에 따르면, 종교가 없다고 응답한 미국인의 비율은 2018년 25.5%에서 2020년 23.3%로 감소했다.

이미경 기자

수단 기독교인, 교회 재산 갈등 속 1년 만에 석방… 암살 위협에 고립



카르툼의 역대 정권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복종을 압박하고 내부 갈등을 부추긴 뒤, 공동체가 분열되면 교회 재산의 통제권을 빼앗으려 해왔다. ⓒICC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정부의 교회 재산 강탈 시도에 맞서다 망명한 목사의 아들이 1년 넘는 억울한 옥살이 끝에 석방됐으나, 목숨을 노리는 테러 위협 속에 수도 카르툼에 고립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10월 29일 보도했다.

국제 기독교 박해 감시 단체인 국제기독연대(ICC)는 지난 23일, 수단 카르툼의 코바르 교도소에 구금되어 있던 기독교인 아민 이스마일이 석방됐다고 밝혔다. 이스마일은 2025년 7월, 수도 카르툼에 머물던 아내를 방문했다가 이튿날 당국에 전격 체포된 이후 줄곧 수감 생활을 이어왔다.

이번 사건은 수단 정부의 교회 통제와 재산 몰수 시도에 저항하다 피신한 이스마엘 아자즈 목사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지적됐다. 수단 사법부는 재판 과정에서 이스마일에게 수차례 무죄 판결을 내렸음에도 당국은 그를 석방하지 않고 장기간 구금했다.

CDI는 석방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일의 신변 안전은 확보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현재 수도 카르툼에 체류 중인 그를 교도소 밖에서 살해하려는 공작이 포착되는 등 목숨을 담보할 수 없는 위협이 지속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수단 내 기독교 공동체가 겪고 있는 재산권 침해 및 종교 박해 사례의 연장선에 있다. 수단 당국과 일부 유력 인사들은 친정부 성향의 지도부 위원회를 세우거나 법적 압박을 동원해 교회 자산을 강제로 빼앗으려는 시도를 이어왔다. 실제로 카르툼의 수단 그리스도교회 부지를 강제 수용하려는 시도가 발생했으며, 교단 건물의 명도를 거부한 장로교 목사가 체포되는 사건도 잇따르고 있다.

2023년 4월 수단 정규군(SAF)과 준군사조직 신속지원군(RSF) 간에 발발한 내전은 기독교 공동체의 피해를 한층 가중시켰다. 교전 과정에서 성전 건물이 파괴되고 성도들이 피난길에 오르는 등 정상적인 예배 활동이 어려운 실정이다.

망명 중인 아자즈 목사는 아들의 석방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가족의 신변 안전에 대해 깊은 우려를 밝혔다. 이스마일은 현재 카르툼을 벗어나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 중이며, 국제 기독연대는 이들 가족의 안전을 위한 기도를 당부했다.

다니엘 최 기자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11:00 / EM예배 오전 11:00 /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기도회 (마지막주) 오후 11:00 / 새벽예배 오전 5:20 (화-금) 오전 6:00 (토)
박종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e.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rsla@hnsla.org

1부예배 오전 7:45 / 2부예배 오전 9:10 / 3부예배 오전 12:00 / 금요예배 오후7:30 / 새벽예배 (화-금) 오전 6:00, (토) 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예수의 제자로 성숙해지는 공동체!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com

KM 주일예배 - 1부 07:30AM - 2부 09:15AM - 3부 11:00AM / EM 주일예배 - 1부 09:00AM - 2부 11:00AM / 새벽예배 - 평일(월~금) 05:00AM - 토요 예배 06:00AM
김지성 담임목사
글로벌선교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CA 91765
T. (909)396-4441 www.igmc.org

주일 1부 8:00 AM / 주일 2부 9:30 AM (각 교육부 예배) / 주일 3부 11:20 AM (각 교육부 예배) / 수요경배와찬양 (수) 7:30 PM / 새벽예배 (월-금) 5:30 AM / (토) 6:00 AM / 한어청년부 1:30 PM / 영어대학부 2:00 PM / EM(dscp) 1부 9:30 PM / 2부 11:00 AM
백정우 담임목사
남가주 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1750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622-8815 https://covenantkoreanchurch.com

주일 예배 (KM) 오전 10:30 / 주일 예배 (EM) 오전 10:30 / 유년부 (K-2) 오전 10:30 / 초등부(3-5) 오전 10:30 / 중,고등부 (Youth) 오전 10:30 / 대학청년부 (College) 오전 10:30 / 중보기도 (Intercessory prayer) 오전 9:40
최현규 담임목사
주님 CHURCH
주일예배 401 S. Palm St. La Habra, CA 90631
T. (626)901-919 Email : joonim0623@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 유아, 유치부 오전 11:00 / 초.중.고등부 오후 11:00 /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오전 6:30(토)
이종천 담임목사
나침반교회
"사랑으로 하나되고 은혜로 세워가는 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T. (213) 999-9298 www.nachimban.

LA 북부 지역, 라스베가스, 타주

주일 1부 오전 8:30 / 주일 2부 오후12:00 / 젊은이 예배 오후 2:00 / 주일학교 오후 12:30 /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경진 담임목사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1부예배 오전8:00 / 주일2부예배 오전11:00 / 유아유치부 오전11:00 / 초등부 오전11:00 / 중고등부(아가페홀) 오전11:00 / 영어부예배(믿음채플) 오전11:00 / 새벽기도회(월-토) 오전6:00 / Youth 금요모임(금) 오후7:30
유경재 담임목사
나성북부교회
성경을 배우며 성경에 충실한교회
8756 Woodley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893-8755

주일 1부 오전 8:00 / 2부 오전 10:30 / EM예배 오전 10:30 / 중고등부 오전 10:30 / 한어청년 오후 12:30 / 수요예배 오후 7:30 /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주일 1부 8:00AM / 주일 2부 9:30AM / 주일 3부 11:15AM / 영아, 유아, 유치부 9:30AM/11:15AM / 중고등부 9:30AM/11:15AM / 수요기도회 7:30PM / 새벽예배 월~토 5:30AM
손창민 담임목사
에브리데이교회
예수로 충만한 교회
17037 Devonshire St, Northridge, CA 91325
Tel. (818) 832-6628 www.churcheveryday.org

1부 예배 오전 8:30 / 2부 예배 오전 11:00 / 금요아노인팅예배 오후 7:30 /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 EM예배 (1부)오전 9:00 / EM예배 (2부)오전 11:00 /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 1:00
오명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 영어예배 오전 10:00 / 금요예배 오후 8:00 /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주일예배 오후 12:30 / 주일 EM예배 오후 12:30 /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 화요성경공부 오후 7:30
이건창 담임목사
발렌시아 샘물교회
25222 Wiley Canyon RD, Samta Clarita, CA 91321
Tel. (661)219-5434 www.sammool.org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 주일 3부 영어예배 오후 1:00 / 금요영성집회 저녁 7:45 /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 / 토 오전 6:00
이충환 담임목사
www.icccla.org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T
T.(818)363-5887 iccc.offic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 주일예배 2부 오전11:00 / 교육부예배 주일 오전11:00 / 수요예배 저녁 7:00 / 새벽예배(화-금) 새벽 6:00
박성호 담임목사
베이커스필드 ANC온누리교회
6700 Schirra Ct, Bakersfield, CA 93313
T. (661) 831-2262 / onnuribk.com/anc

주일예배 오전 11:00 / 주일 성경공부 풍요로운 삶 오전 9:30 / 화요 3,3,3 기도회 매달 둘째주 오전10:30 / 목요 TEE 양육 Zoom 오후 7:30 / 목요 거리전도 오전 10:00 한인타운 / 토요 새벽기도회 오전 6:00
송금관 담임목사
평강교회
606 El Centro St ,South Pasadena, CA 91030
T. (213)393-9136 http://pyongkang.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한국어) / 주일예배 2부 오전10:15 (한국어, 스패니쉬) / 주일예배 3부 오후12:15 (한국어,교육부) / 새벽예배(월-토) 새벽 6:00 / (7175 W Oquendo Rd, Las Vegas, NV 89113)
강일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순복음교회
9525 W Maule Ave, Las Vegas, NV 89148
T. (702) 453-1223 / www.fglvchurch.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45 / 주일예배 2부 오전11:30 / 유초등부 주일 오전11:30 / 중고등부 주일 오전11:30 / 수요예배 저녁 7:30 /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임인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중앙교회
7570 Peace Way, Las Vegas, NY 89147
T. (702) 489-2999 / www.joonganglv.org

주일예배 1부 오전11:00 / 주일예배 2부 오후 2:00 / EM예배 오전11:00 / 수요예배 오후 7:00 /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송삼용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즐거운 제자교회
101 S Rancho Dr, Las Vegas, NV 89106
T. (702) 378-9828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 주일예배 2부 오전11:00 / 교육부예배 오전11:00 / 수요말씀기도회 오후 7:00 / 토요새벽예배 오전 7:00 E. lvkcchurch@gmail.com
이정환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
예수님의 제자되어 성령님의 열매 맺는 교회
622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252-0077 / lvkcc.org/lvkcc/index.php

장년예배 1부: 오전 9:00 / 2부: 오전 11:00 /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 중보기도회 수요일 오전 11:30 / 금요찬양예배 금요일 오후 7:00
조응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 E. drjho@hotmail.com

주일 1부 예배 11:30 AM / 주일 2부 예배 1:30 PM / 수요예배 7:00 PM / 새벽기도 화~토 5:50 AM
임명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우리좋은장로교회
8425 W. Windmill Ln. Las Vegas, NV 89113
T. (702)685-2212 , woorijoeunchurch.com

주일 1부 예배 오전 9시 / 주일 2부 예배 오전 10:45 / 주일학교 오전 11시 / Youth 오전 10:45, 오후 1시 / 새신자 성경공부 주일 오후 1시 / 제자훈련 주일 오후 1시 / 금요예배 저녁 7시 / 새벽예배 오전 6시(화~금)
김광석 담임목사
라운드락교회
2011 Cade Lk, Round Rock, TX 78664
T.(512)228-1934 https://www.rrkpc.net

1부예배 오전 9:00 / 2부예배 오전 11:30 / 주일학교 오전 11:30 / 중고등부 오전 11:30 / 청년부 주일 오전 1:30 / 수요예배 오후 8:00 / 새벽예배 오전 5:30
홍경헌 담임목사
헨더슨주사랑장로교회
2 S. Pecos Rd, Henderson, NV 89074
T. (702)304-0324 / http://hendersonkchurch.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크리스천 비지니스

CHRISTIAN BUSINESS

학생 모집 캘리포니아 두란노대학교
B.th, Th.M, M.Div, D.Min, Th.D coafs-07-388665
캘리포니아 전체에서 신학박사 인가 대학은 3곳뿐입니다.
■ 학교운영하실 분 $7만불 (신학철학책 1만권 포함)
■ 나성중부교회 김 호 박사 / 캘리포니아 디렉터
213-507-1933

INNEX PRO Collision Center
아이넥스 프로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213-383-1230
2811 Leeward Ave. LA, CA 90005

헤어 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레스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드레서가 되고 싶은 분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 아시아미용선수권 우승
- 아시아미용가협회수석강사
-영국 알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독일 슈바츠코프(Beauty College) 초대 한국강사
-한국국가대표 심사위원 트래이너 역임

IFOP FOP SERVICE, INC.
PLUMBING License# 1139798
업계 최저가격
드레인 클린 $40불 부터
213-434-8947
OUR SERVICES:
• Water Leaks & Pipe Clogs
• Drain & Sewer Cleaning
• Pipe Repair & Replacement
• Water Heaters
• Toilets, Sinks, Disposal

치질! 수술없이 시술로도 가능한가요?
교통사고 전문
치질증상으로 항문소양증, 항문과
꼬리뼈 통증 출혈로 앉기도 두렵고
매번 화장실 가는것도 무섭다. 정력강화
배빼는 숙변제거약 먹으면서 체중 줄고 몸 전체 부종 빠지는 약 한달분 $70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 – 7~25 lbs · 손목 터널 증후군 침치료 가능합니다
3대째 가업 영선한의원 213.380.7800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A, CA 90020

가족을 위한 마지막 배려, 마음이 편해지는 장례플랜
장례플렌
화장, 매장
Worldwide FAMILY INC.
Representing Family Owned & Operated Funeral Homes
① 물가상승 대비 장례비용 고정
② 사망시 속한 장례 절차 진행
③ 원하는 화장 또는 매장방식 설정
④ 부담없는 장례요금 할부 계획
⑤ 만성질환, 정부 혜택 수혜자도 가입
이한주 장례 전문상담사 CA Lic.#0K41143 213.321.8787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한 가족서 가주 변호사 3명 탄생



제이슨 송 교장 가족 사진.

LA 한인타운 새언약학교(NCA) 출신 티파니 은아 송 씨가 지난 10월 30일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새언약학교 제이슨 송 교장과 카라 송 씨의 딸인 티파니 씨는 지난해 합격한 오빠 티모시 낙현 송 씨와 그의 아내 나오미 쿠야간 씨에 이어 가족 중 세 번째 합격자가 됐다.

티파니 씨는 새언약학교에서 고교 학생회장을, 페퍼다인대에서 한인학생회장을 지냈다. 대학 졸업 후 LA 다운타운의 한 로펌에서 1년간 인턴으로 근무한 뒤 로욜라 로스쿨에 장학생으로 진학했다. 재학 중 법률학술지 '로 리뷰' 편집자로 활동했으며, 현재 루이스 브리즈보이스 로펌에서 계약과 상법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송 씨 남매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2학년까지 새언약학교에서 공부했다. 두 사람 모두 고교 최우수 졸업생으로 페퍼다인대에 리전트 장학생으로 진학했으며, 각각 3년 만에 학부 과정을 마쳤다. 송 교장은 읽기와 탐구, 토론, 발표를 중시하는 새언약학교의 국제바칼로레아(IB) 교육이 두 자녀가 대학 수업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티모시 씨는 대학 졸업 후 모교에서 1년간 봉사한 뒤 애리조나 주립대 샌드라 데이 오코너 로스쿨에 장학생으로 진학했다. 현재 샌호세에서 상속과 세금 분야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새언약학교는 기독교계 사립학교로, 서부학교대학협의회(WASC) 인증을 받았으며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정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메디케어의 모든 궁금증, 전화 한 통으로 해결



지난 40여 년간 한인 동포 사회의 든든한 보험 길잡이로 자리를 지켜온 '윌셔 Jay Park 종합보험(대표 박상준)'의 자회사 '리버티 Park 보험 마케팅'이 2026년 메디케어 연례 가입 기간(AEP: 10월 15일~12월 7일)을 맞아 남가주 전 지역 시니어들을 위한 맞춤형 플랜 컨설팅 서비스를 본격 가동한다.

매년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진행되는 AEP(Annual Enrollment Period) 기간은 메디케어 플랜을 변경하거나 새로 가입할 수 있는 일 년 중 가장 중요한 시기다. 하지만 수많은 플랜 옵션과 매년 새로 바뀌는 혜택 내용 탓에 많은 시니어 동포들이 까다롭고 이해하기 어렵다며 불편을 겪고 있다.

박상준(미국명 Jay Park) 대표는 "메디케어는 시니어 여러분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노후를 책임지는 핵심 요소"라며, "리버티 Park 보험 마케팅은 까다롭고 복잡한 메디케어의 모든 궁금증을 전화 한 통으로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리는 '해결사 열쇠'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리버티 Park 보험 마케팅은 로스앤젤레스, 오렌지카운티, 리버사이드, 샌디에고 등 남가주 전 지역을 아우르는 메디케어 전문 에이전트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동포들이 가까운 곳에서 언제든 편리하게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남가주 메디케어 에이전트 안내

JAY PARK 213-507-9801 (Lic # 0698140)
INOGI LIM 909-810-8800 (Lic # 0D28169)
KYU B HAN 562-945-2670 (Lic # 0B55520)
JUSHIK HONG 714-614-1795 (Lic # 4156539)
SUSAN O KIM 714-403-3709 (Lic # 4224339)
JOHN KIM 858-866-8735 (Lic # 0G32632)
TERRI CHUNG 818-913-1928 (Lic # 0L06830)



김명일 목사 초청 말씀 사경회

한길교회(고광선 목사)는 북경 시온교회 김명일 목사를 초청해 11월 13일(금)-15일(주일)까지 가을 말씀 사경회를 개최한다. 김명일 목사는 '끊임없이 펼쳐지는 그분의 영광'(룻 2:12)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한다.

김명일 목사는 지난 2025년 중국 지하교회에 대한 단속 과정에서 체포돼 구금되었다가 지난 7월 3일 석방되어 미국으로 돌아왔다.

11월 13일(금) 7:30 PM "방향이 노력보다 더 결정적이다!"
11월 14일(토) 6:00 AM, 7:30 PM
새벽 "나로 밭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저녁 "모험적인 믿음의 행동"
11월 15일(주일) 1,2부 예배
1부 "교회는 하늘의 권세를 행사하라"
2부 "끊임없이 펼쳐지는 그분의 영광"



ADU 전문
리모델링
Kitchen & Bath 완전 리모델링
디자인 설계 시공
Solar & Roof
집수리 일 체
"26년 건축의 달인과 지금 바로 상담해 보세요"

■ 1~2명이 일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각 분야별로 2~3명이 조를 이루어 Crew가 일을 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고 빠릅니다.
■ Kitchen팀, Bathroom팀, ADU 전문, Roofing팀, Solar 설치팀, 마루시공팀, Carpentry팀, 전기팀, Plumbing팀, Window팀, Concrete Stucco팀, 철공팀, 페인팅전문팀, 디자인설계팀
(하청없이 완전 전문가 Crew로 구성)
■ Kitchen 완전 리모델링 4-5일 완성
■ Bathroom 완전 리모델링 5-6일 완성
www.kurbanbuilders.com
www.en.kurbanlike.com
실제 작업 사진 보러가기

K-Urban Builders
K-Urban Like CSLB # 854389
견적 상담 213-310-1800
LA 2621 W. Olympic Blvd. # 206 Los Angeles, CA 90006
견적 상담 213-798-2200
OC Show Room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강준민 칼럼

어두운 땅에서 뿌리는 깊어집니다



강 준 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저는 목회 여정에서 여러 번 어두움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목회 여정의 끝자락에서 또 하나의 어두움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두움은 좀처럼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도 앞이 보이지 않을 때는 답답합니다. 미래를 알 수 없을 때는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옵니다. 기도해도 금방 응답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저는 어두움이 좋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고난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어두움을 낭만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두움은 어두움입니다. 아프고 답답합니다. 때로는 외롭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어두움을 통과하면서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어두움은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아직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씨앗은 밝은 햇빛 아래에서 뿌리를 내리지 않습니다. 어두운 땅속에 묻힌 후에 뿌리를 내립니다. 땅 위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땅속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단단한 껍질이 갈라집니다. 생명이 깨어납니다. 작은 뿌리가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시 아래로 뿌리가 박히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사 37:31). 순서가 중요합니다. '아래로'가 먼저입니다. '위로'는 나중입니다. '뿌리'가 먼저이고 '열매'는 나중입니다. 우리 영혼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열매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뿌리를 깊게 하십니다. 우리는 높아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때로 낮아지게 하십니다. 우리는 드러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때로 감추십니다. 우리는 빨리 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십니다.

어두운 땅에서 뿌리는 깊어집니다. 어두움 속에는 침묵이 있습니다. 고요가 있습니다. 기다림이 있습니다. 밝을 때는 바깥을 바라보지만 어두워지면 안을 바라보게 됩니다. 분주할 때는 듣지 못했던 작은 음성을 고요 속에서 듣게 됩니다. 자신도 몰랐던 조급함과 두려움과 욕망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어두움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무르익습니다. 깊어집니다. 아름답게 빚어집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과정도 생각해 보십시오. 애벌레는 고치 속으로 들어갑니다. 고치 안은 어둡고 좁습니다. 밖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전의 모습이 해체되고 새로운 모습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고치를 뚫고 나비가 나옵니다.

우리가 고치만 바라본다면 어두움만 보게 됩니다. 하지만 나비까지 바라본다면 어두움 속에서 진행되고 있었던 변화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눈부신 어두움'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어두움이 어떻게 눈부실 수 있겠습니까. 어두움 자체가 눈부신 것이 아닙니다. 어두움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 어두움이 눈부신 것입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뿌리를 내리게 하십니다.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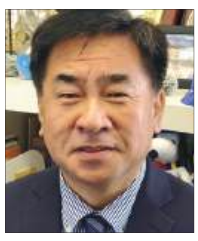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도 어두움이 있었습니다. 금요일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이 찾아왔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날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무덤에 있었습니다. 돌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하늘은 침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토요일이 마지막 날은 아니었습니다. 주일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고 계셨습니다. 죽음 속에서 생명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무덤 속에서 부활의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어두운 토요일에 너무 빨리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끝내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두움을 통과하면서 깊은 사람이 됩니다. 쉽게 판단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 곁에 말없이 앉아 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자신의 힘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어두움 속에서 깊어진 뿌리는 마침내 누군가에게 그늘이 됩니다. 하나님은 밝은 날에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두움 속에서도 일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장 보지 못하는 어두운 곳에서 가장 깊은 일을 행하십니다. 새 생명을 잉태하게 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어두움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면 너무 빨리 절망하지 마십시오. 아직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뿌리가 자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 기다리십시오. 씨앗이 어두운 땅속에서 뿌리를 내리듯 깊어지십시오. 어두움은 마지막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어두운 땅에서 뿌리는 깊어집니다. 깊어진 뿌리는 때가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밤에도 하나님은 새벽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통과하고 있는 어두움은 훗날 돌아보았을 때 '눈부신 어두움'이었다고 고백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서로의 어두움을 보듬어 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 새벽을 기다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빕니다.

박상준 칼럼

내 삶의 영원한 방파제, 책과 하나님의 은혜



박 상 준 의장
피코 유니온 주민의회

'비타민!' 이는 듣기만 하여도 온몸에 생기가 돌고 가슴이 설레는 단어입니다. 삶이라는 기나긴 여정 속에서 지친 영혼과 육신을 깨우는 영양소이자, 인생의 손을 잡고 미소 짓게 하는 소중하고 귀한 보배입니다. 칠십 년의 세월을 돌아보니, 내 삶에 가장 눈부신 영양소를 공급해 주신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셨고, 그분이 내려주신 무한한 사랑과 말씀이야말로 내 영혼의 영원한 비타민이었습니다.

글로 묶여진 책, 그리고 그보다 더 단단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버팀목이 있었기에, 나는 거친 세상의 바다에서 몰아치는 비바람과 폭우를 견뎌내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노라 자신 있게 고백합니다. 그 은혜의 글귀들과 찬송의 고백들은 때로는 거센 파도를 막아주는 방파제가 되어주었고, 때로는 슬픔의 어둠을 밝혀주는 등대가 되었습니다.

젊은 날의 나를 돌아봅니다. 50년 전 청운의 꿈을 품었던 대학 시절, 나는 생계를 위해 묵직한 가방을 들고 길을 누비던 청년 영업사원이었습니다. 가방 가득 누군가의 건강을 채워준다는 자부심과 열정을 담고 낯선 문들을 두드리던 그 시절, 내 가슴을 불타오르게 했던 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민태원 선생의 《청춘예찬》 입니다.

"청춘! 이는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다. 청춘! 너의 두발에 대고 약동하는 피는 청춘의 손을 잡고 미소 짓는 인생의 오직 하나뿐인 귀중한 보배다... 이상을 품은 청춘은 언제나 힘차고 우뚝하다. 인생의 황금시절, 그 우람한 꿈과 불타는 정열은 청춘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자 축복이다."

해 저문 거리의 벤치에 앉아 땀을 씻어내며 읽어 내려가던 이 문장들은, 고달픈 현실에 지쳐가던 청년에게 단순한 수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친 삶을 헤쳐 나갈 힘과 용기를 심어주는 강력한 영혼의 비타민이었고, 내일을 향해 다시 달릴 수 있게 하는 뜨거운 연료였습니다.

그리고 그 열정 뒤에는 언제나 나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예배당에서 들려오던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가라"는 강단 위의 말씀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어린 군병 같던 내게 담대함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삶의 굽이마다 지치고 낙심할 때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라는 찬송을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그 찬양은 풍랑을 만난 내 삶의 배를 든든하게 잡아주는 영원한 방파제이자 소망의 노래였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아서 어느덧 칠십의 높다란 고개에 올라선 오늘, 서재 한구석에서 빛바랜 노트를 꺼내 다시금 《청춘예찬》을 펼쳐 들고 옛 찬송을 나지막이 불러봅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청년 시절 느꼈던 에너지가 다시금 벅차오릅니다. 세월의 바람은 이마에 굵은 주름을 남기고 피부를 늙게 할지언정,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비타민을 마신 마음은 결코 시들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약동하는 마음과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기에, 좋은 글과 은혜를 향한 나의 열정 역시 여전히 청년의 그것처럼 뜨겁습니다.

누군가는 청년 시절 영양제와 비타민을 팔고, 평생 글과 은혜라는 비타민을 곁에 두고 살아온 내 삶을 보고 "참으로 비타민과 인연이 깊은 분이구나" 하고 미소 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홀로 기분 좋은 웃음을 지어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참으로 비타민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약병에 담겨 육신의 피로를 풀어주는 비타민도, 종이 위에 새겨져 영혼을 밝혀주는 비타민도,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까지 나의 갈 길을 성실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비타민도 모두 내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2026 미주기독 대학박람회

TALBOT SCHOOL OF THEOLOGY BIOLA UNIVERSITY 신입생 모집
탈봇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 세계 최고의 교수진
• 영성 형성 집중 프로그램
• 실용적인 사역 대비
• 오프라인 수업
• 미국 비자 (I-20) 발급
카카오톡 채널: "탈봇" 검색
유튜브: "탈봇신학교" 검색
Email: talbot.korean.dmin@biola.edu
13800 Biola Avenue, La Mirada, CA 90639 | Tel : 562-903-4705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정회원
• 기독교학과(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목회학박사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철학박사(Ph.D)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T(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 이상훈 박사
1204 W. 163rd St.Gardena, CA 90247
Tel (323)643-0301, Fax(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인터넷 홈페이지 www.mbts.edu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eway., Kansas City, MO 64118
Tel.(816)414-3754 Email:ks@mbts.edu

SINCE 1977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
"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의 새로운 이름
* 전세계 온라인으로 온 캠퍼스와 실시간 수업가능 *
• 1977년 설립된 이후 지켜온 선교 지향적 교육을 토대로 다양하고 폭넓은 미래지향적 교육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 최첨단 효율적인 온, 오프라인, 블랜디드 교육 플랫폼 제공
• 과정에 따라 영어, 한국어, 중국어 프로그램 (학사, 석사, 박사)
• SEVIS I-20 발행 | 연방정부 학자금 보조 | 미국연방 인가된 학교
• 홈페이지 www.ptsa.edu | 입학문의 562.926.1023 (EXT 300)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213)388-1000 Fax:(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정회원 인준
▪특 전 : Sevis I-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714)527-0691(0692) Fax:(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909- 687-1649 / KEB@GS.EDU
WWW.GS.EDU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UNIVERSITY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T.(626)857-2200

글로벌침례신학교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ion & Seminary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요람
목회자와 교사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는
Re-Vital Online Program
www.gbtis.org
학교주소 | 3108 Valley View Ln, Farmers Branch, TX 75234
이메일 | aurahelio@gmail.com
전화 | 508-826-5145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www.itsla.edu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미국연방인가기관 ATS정회원" 2006년 취득
▪ MATS 선교학 석사 ▪ M.Div 목회학석사
▪ Th.M 신학석사 ▪ D.Min 목회학박사
100% 온라인 ATS인가 학위 • 온라인 수업 제공
문의(626) 653 9547 EXT.# 112/admin.kor@itsla.edu

제 4기

성경필사 장학생 모집



말씀을 쓰다, 믿음을 새기다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로마서를 쓰며
주님의 생애를 묵상하고,
말씀 안에서 관계가 회복되며,
가슴 깊이 새겨진 구절마다
생명이 흘렀습니다.
이제, 그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많은 신청을 기다립니다.

35명 선발

1인당 장학금 $1,000



지난 장학생들이 고백한 은혜의 이야기

"필사하는 동안 제 삶이 변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제게 열려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서서히, 저는 제가 붙들고 있던 분노와 원망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성경 필사를 통해 희망을 품게 되었고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주님과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도와준 이 프로그램에 대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과 말씀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셨는지 아는 것은 정말 귀중한 경험이 었습니다."

성경필사 본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본문 (한글, 영문 중 선택 가능)
응모대상	현재 재학중인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나이 만 14세~25세)
신청방법	QR 코드 스캔 후 신청
신청마감	2026년 11월 7일 (토)까지
장학생 선정발표	2026년 11월 14일 (토) 개별통보
필사노트 제공 및 교육	2026년 11월 21일(토) 오전 10:30 LA 장로교회 (한현종 담임목사) 616 Shatto Pl. Los Angeles, CA 90005
장학금 전달식	2027년 7월 중 (장학생들에게 날짜와 장소는 추후에 알려 드림)
문의	기독일보 213-434-1170 chdailyreporter@gmail.com 3055 Wilshire Blvd. #480 LA, CA 90010

신청 QR 코드

QR 코드를 스캔하여
신청해 주십시오.

주최 기독일보
kr.christianitydaily.com

주관 ING Institute for Next Generations 크리스천 다음세대 연구소 (Institute for Next Generations)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편 119:105

[사설] 신앙고백 충돌, 틀어막는 게 능사 아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였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및 세계교회협의회(WCC) 탈퇴안이 본회의에 상정도 되지 못한 채 기각됐다. 제36회 총회에서 같은 내용이 다뤄졌었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안건은 총회 참석 총대 중 약 22%인 24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총회 공천 및 건의안 심사위원회에 제출됐다. 하지만 심사위가 해당 안건의 상정을 저지했다. 2년 전 총회에서 NCCK 대책연구대책위원회가 "NCCK에 잔류하되, 복음적인 실행위원을 파송해 올바른 방향으로 견인하자"고 제안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으니 이미 종결된 사안이라는 이유를 붙였다.

심사위가 해당 안건을 기각한 것에 대해 총대들의 의견은 36회 총회 때 WCC, NCCK 의제를 다루면서 연구하기로 했으니 변화를 지켜보자는 신중론과 여태껏 변화를 기대하며 시간을 보냈으나 달라진 게 없으니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하지만 총회는 끝내 심사위의 기각 결정에 손을 들어줬다.

해당 안건이 총회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는 소식에 '복음주의 감리교 목회자와 평신도 일동' 등 안건 상정을 추진했던 단체 회원들은 총회 장소인 광림교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총회 처사에 불만을 드러냈다. 이들은 WCC와 NCCK의 신학적 방향과 활동에 대해 감리교회 내에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현실에서 총회가 정상적인 논의의 기회조차 거부했다고 꼬집었다.

감리교단 내에서 WCC와 NCCK에서 탈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한목소리로 외치는 게 있다.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두 단체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성 소수자 관련 입법과 사회적 논의에 공개적인 지지 입장을 표명하는 등 감리교회의 신앙고백과 명백히 충돌하고 있다는 거다. 이미 오래 전부터 교단 안에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총회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교단 안에 신앙적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감리교는 최근 약 15년 새 소속 교인 수가 약 45만 명이나 감소하는 등 위기를 피부로 체감하고 있다. 2010년 약 159만 명에 달하던 교세가 약 114만 명으로 급감하면서 다음 세대 사역과 미래 선교의 방향이 흔들리고 처지가 됐다.

최근의 교세 위축이 꼭 감리교단의 신학적 정체성과 직접 연관된 거라고 보긴 어렵다. 예장 합동과 통합 등 대형교단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 연합감리교회에서 동성애 이슈로 수많은 교회가 이탈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감리교단이 우리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로 여길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교단의 신앙고백과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교단이 나서 적극적인 논의와 소통으로 풀어야 할 것이다. 그러지 않고 무조건 틀어막는 게 능사는 아니다.

송금관 칼럼

두레박 없이 받는 물



송 금 관 목사
사우스 패서디나 평강교회

부산 북항 친수공원 수로에 상어가 나타난 것은 지난 9월 18일이다. 흑상어 '부캉이'는 한 달 넘게 그곳에 머물렀고, 공원 누적 방문객은 160만 명을 넘었다고 한다. 평소 하루 2천 명 안팎이던 공원이라니, 상어 한 마리가 도시를 들썩이게 한 셈이다. 지느러미라도 한번 보겠다고 모여든 사람들을 떠올리면 슬며시 웃음이 난다. 일상에 이런 뜻밖의 손님 하나쯤 찾아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런데 지난달 말에 나온 『트렌드 코리아 2027』은 내년의 첫 번째 소비 트렌드로 '권태사회'를 꼽았다. 김난도 교수와 연구진은 자극이 넘치고 바쁘게 살면서도 좀처럼 재미를 느끼지 못하는 현상에 주목했다. 심심할 틈 없는 세상에서 권태라니, 처음에는 고개가 갸웃해진다. 그런데 내 하루를 돌아보면 영 틀린 말도 아니다.

옷장은 가득한데 입을 옷이 없다는 '옷태기', 거울 속 내 모습이 마음에 안 든다는 '얼태기'. 권태기라는 말이 일상 곳곳에 붙는다. 재미있는 것을 찾는 속도만큼 싫증 내는 속도도 빨라졌다. 새로 산 물건은 포장도 뜯기 전에 다음 물건을 기웃거리고, 여행지에 도착하면 벌써 다음 여행을 검색한다. 어느새 우리는 누리는 일보다 다음 즐거움을 찾는 일에 더 익숙해졌는지도 모른다.

부캉이를 보러 나선 발걸음까지 권태 탓으로 돌릴 마음은 없다. 낯선 생명을 신기해하는 마음도, 온 가족이 나들이 나선 기쁨도 그 자체로 귀하다. 다만 즐겁게 보내고 돌아왔는데 어딘가 허전한 날이 있지 않은가. 실컷 웃었는데 이상하게 채워지지는 않는 날 말이다.

사람의 칭찬도 비슷하다. 듣는 순간에는 기분이 좋은데, 다음 날 누가 무심하게 대하면 어제의 칭찬은 힘을 잃는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죄는 아니다. 문제는 그 인정이 끊기면 나라는 사람까지 보잘것없게 느껴진다는 데 있다.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마음을 채우려 하니, 아무리 채워도 또 비어버린다. 이런 생각 끝에 요한복음 4장의 우물가가 떠올랐다. 물을 길으러 온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고, 그보다 먼저 길을 가시다 피곤하여 우물 곁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계셨다. 대화는 "물을 좀 달라"(요 4:7)는 부탁으로 시작된다. 목마르신 분이 먼저 말을 건네신 것이다. 잠시 뒤 예수님이 생수를 말씀하시자 여인은 "물 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요 4:11) 하고 되묻는다. 눈앞의 형편만 보면 당연한 질문이다.

예수님은 우물물에 기대어 사는 사람이 아는 사실부터 짚으신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요 4:13). 그리고 당신이 주시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요 4:14)이 된다고 하신다. 여인은 물을 얻을 방법을 묻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 안에 샘이 생기는 이야기를 하고 계셨다. 훗날 요한은 이 생수가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키는 말씀이었다고 풀어준다(요 7:38-39).

나는 이 차이가 오래 마음에 남는다. 누군가의 반응을 확인해야 안심이 되고, 성과가 있어야 내 삶이 괜찮다고 느끼는 동안에는 늘 두레박을 내려야 한다. 오늘 받은 칭찬으로 내일의 불안을 막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은 이렇게 날마다 조달해야 하던 내 가치의 근거를 바꾸어 놓는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사실이 삶의 바닥에 놓이는 것이다.

그 사랑은 막연한 위로에 머물지 않는다. 우물가에서 생수를 말씀하시던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요 19:28) 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생명을 내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길이 열렸다. 그 사랑을 믿는다는 것은 나를 증명하지 못한 날에도 내 삶이 버려지지 않았음을 믿는 일이다. 세상의 평가가 바뀔 때마다 처음부터 다시 얻어 내야 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 나는 거기에 깊은 위로가 있다고 믿는다.

2027년이 오면 또 새로운 유행이 생길 것이다. 갖고 싶은 것도, 가 보고 싶은 곳도 늘어날 테고, 그 즐거움을 마다할 이유는 없다. 다만 새해의 유행을 챙기는 만큼, 오늘 내 마음이 무엇에 목말라 있는지 살피는 일도 소중하지 않을까.

사마리아 여인은 물을 길으러 왔다가, 자기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겠다는 분을 만났다. 자기 힘으로 길어 올릴 생각만 하던 사람에게 먼저 건네 오는 생명이 있었다. 그 앞에서는 오래 애쓰던 마음이 조금 쉬어도 좋겠다.

[이전호 '김재성 칼럼' 이어서 계속]

2) 선행과 기부금의 문제

연옥 교리와 관련해 역사적으로 논쟁이 되었던 중요한 문제는 면죄부와 금전적 기부였다. 중세 교회에서는 면죄부의 판매와 관련한 관행이 확산되었고, 이는 종교개혁의 주요한 계기가 되었다.

필자는 연옥에서의 형벌을 줄이기 위해 기도와 미사, 자선과 기부 등을 강조하는 관행이 신자들의 두려움을 이용하고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한다.

죽은 이의 구원이 기부금이나 인간의 공로에 달려 있다는 이해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개혁주의의 가르침과 양립할 수 없다. 구원은 돈으로 사거나 인간의 공로로 획득하는 것이 아니다.

3) 연옥과 구원의 확신

개혁주의 신학은 믿는 자의 구원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역에 근거한다고 강조한다. 죄인은 자신의 선행이나 사후의 정화 과정을 통해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믿는 자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선언한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예수님께서 회개한 강도에게 낙원을 약속하신 말씀 역시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원의 확실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개혁주의 관점에서 연옥은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치는 교리가 아니며, 그리스도의 속죄가 충분하다는 복음의 진리를 흐릴 위험이 있다.

결론

이 글에서 살펴본 미사와 화체설, 은혜주입설, 신인협력설, 선행과 공로주의, 이중 칭의론, 연옥설은 로마 가톨릭과 개혁주의 사이에 존재하는 중요한 신학적 차이들이다. 여기에 교황권과 교황무오설, 마리아 공경, 고해성사, 면죄부 등 여러 쟁점도 더해진다.

핵심은 구원이 무엇에 근거하는가 하는 문제다. 개혁주의 신앙은 죄인이 자신의 공로나 종교적 의식으로 구원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속 사역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친다. 선행과 거룩한 삶은 구원의 대가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열매다.

바울은 빌립보 간수에게 이렇게 선포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행 16:31). 아멘!!



“언더우드 선교사가 전한 복음, 북한 선교로 이어져야”

남가주 · 시애틀 연목회와 연세대 남가주 동문회

남가주·시애틀 연목회와 연세대학교 남가주 동문회는 지난 11월 1일 남가주 새찬양교회(최우진 목사)에서 ‘연세추수감사선교예배’를 드리고 북한 복음화를 위해 뜻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2027년 평양대부흥 120주년을 앞두고, 평양의 부흥을 기억하며 북한 동포를 향한 선교적 책임을 되새겼다. 또한 모교 설립자인 언더우드 선교사가 전한 복음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는 자신들이 복음의 일꾼이 되어 북한의 회복을 위해 힘쓸 것을 다짐했다.

이날 예배는 정효남 목사(남가주 연목회 회장)의 인도로 진행됐다. 김효남 목사(남가주 연목회 이사장)가 기도하고, 권기숙 연세대 남가주 동문회장이 환영 인사를 전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시편 118편 17절)라는 제목으로 선교 보고를 전한 박상원 목사(기드온동족선교회 대표)는 약 20년간의 북한 선교 여정을 나눴다.

기드온동족선교회는 사역 초기 의료진과 함께 북한 지역에서 활동하며 의약품이 부족한 보건소와 영양 결핍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을 돌봤다. 이후 두만강 일대에서 탈북민을 돕고, 지하 성도들에게 의료 지원과 구호 물품을 전하는 사역으로 이어졌다. 현재도 북한 지하 성도들과 탈북민들을 지원하며,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북한 복음화와 복음 통일을 위해 힘쓰고 있다.

박상원 목사는 이날 감옥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지하 성도들의 편지와 증언을 소개하며 북한 동포들을 위한 기도와 후원을 당부했다.

박 목사는 “언더우드 선교사를 통해 받은 복음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는 그 복음의 빛을 전하는 ‘선교하는 연세인’이 되자”고 독려했다.

이어 “2027년은 평양대부흥이 일어난 지 120년이 되는 해로, 과거의 부흥을 기념하는 데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서 오늘 교회에 맡기신 사명을 새롭게 발견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북한 땅에서 다시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날을 준비하는 동력이 돼야 한다”고 지속적인 기도와 관심을 요청했다.

설교 후에는 장근성 목사(남가주 연목회 20대 회장)가 박상원 목사에게 북한 선교 후원금을 전달했으며, 지용덕 목사(남가주 연목회 10대 회장)가 북한 선교 격려사를 전했다. 이어 한기형 목사(남가주 연목회 9대 회장)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브라이언 김 기자



남가주 · 시애틀 연목회 · 연세대 남가주 동문회, 북한 회복 위한 추수감사선교예배 ⓒ 기독일보

그레이스미션대학교 후원의 날

그레이스미션대학교(GMU, 총장 최규남)가 개교 30주년을 맞아 11월 14일(토) 오후 6시 은혜한인교회 비전센터 2층 웨딩채플에서 후원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지난 30년간 함께해 온 후원자와 동역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GMU의 비전을 나누고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오후 6시부터 6시 50분까지 진행되는 1부에서는 환영 인사와 기도, 식사가 마련되며, 이어 오후 6시 50분부터 7시 30분까지 진행되는 2부에서는 후원 영상 상영과 특송, 비전 셰어링, 파트너십 개발, 격려 및 기도 순서가 이어진다.

행사 참석을 원하는 사람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사전 등록하면 된다.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도 후원 QR코드를 통해 후원에 참여할 수 있으며, 모든 후원금은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소는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에 위치한 은혜한인교회 비전센터 2층 웨딩채플이다.

문의는 학교 웹사이트(www.gm.edu), 이메일(partner@gm.edu) 또는 전화(714-525-0088)로 하면 된다.

김민선 기자



기쁜우리교회 ⓒ기쁜우리교회가 종교개혁주일 맞아 전 교인 야외예배를 드렸다.

기쁜우리교회 종교개혁 주일 야외예배

글렌데일에 위치한 기쁜우리교회(김경진 목사)가 지난 10월 25일(주일) 종교개혁주일을 맞아 전 교인 야외예배를 드리고 성도 간의 사랑과 교제를 나눴다.

이날 야외예배에는 어린이부터 장년과 시니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세대의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 말씀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교회 공동체의 연합과 신앙의 의미를 되새겼다.

오전 10시에 시작된 예배는 박상현 목사의 기도에 이어 이영주 사모의 창세기 1장 26~31절 성경봉독, 김경진 목사의 설교 순서로 진행됐다.

김경진 목사는 ‘창조의 동역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날 설교 본문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피조세계를 돌보는 사명을 맡기신 내용을 담고 있다.

예배에서는 ‘참 아름다워라’,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등의 찬송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연 속에서 드리는 예배의 기쁨을 함께 나눴다.

이어 낮 12시에는 온라인 예배도 진행됐다. 김경진 목사는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본문으로 ‘개혁의 뿌리’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며 종교개혁의 의미를 되새겼다.

특히 이번 야외예배는 교회 공동체가 세대와 구역을 넘어 한자리에 모여 서로를 격려하고 교제하는 자리로 마련돼 의미를 더했다.

예배 후에는 성도들이 함께 식사하며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단체사진 촬영을 통해 이날의 기쁨과 추억을 남겼다.

기쁜우리교회는 ‘사람을 살리고 세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라는 비전 아래 성령의 감동과 은혜로 예배드리는 교회, 말씀과 기도로 치유와 회복이 있는 교회, 지역과 세계 복음화를 위해 선교하는 교회를 지향하고 있다.

기쁜우리교회는 캘리포니아 글렌데일(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에 위치하고 있다.

교회 홈페이지: www.joyfulccc.com
문의: (818) 662-0400

정부지원금으로 양로호텔 등 입주

캘리포니아 거주 한인 시니어들을 위한 맞춤형 노후 복지 세미나가 개최됐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양로호텔이나 간병시설 입주를 위해 정부의 지원금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돼 주목받았다.

지난 22일(목) 오렌지카운티 제일장로교회(김종규 목사)의 시니어 아카데미 특강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한인 시니어들을 지원해 온 비영리단체 ‘반디마을’의 보미 파커 대표가 진행했다.

보미 파커 대표는 메디칼(Medi-Cal), 메디케어(Medicare), 간병인 서비스(IHSS) 등 한인 시니어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정부 혜택과 절차를 설명하면서 정부 혜택을 실제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캘리포니아 내 전문 간호 시설(SNF) 이용료가 월 1만 2,400불~1만 6,100불 정도며 양로호텔(ALF)은 월 5,300불~7,900불 이상에 달해 개인 부담만으로는 지나친 의료비로 비로 인해 은퇴 예산이 파산될 수 있다.

보미 파커 강사는 “첨단 의학으로 장수 시대가 열렸지만 돌봄 공백과 간병비 부담은 심각한 딜레마”라며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 제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미리 준비해야 존엄한 노후를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는 65세 이상 저소득층을 위한 ‘주정부 저소득층 의료보조 프로그램(Medi-Cal)’ 자격 요건과 자산 심사 기준, 보충보장소득(SSI) 수령 조건, 그리고 근로 크레딧이 부족한 영주권자를 구제하기 위한 캘리포니아 주 ‘현금 지원 프로그램(CAPI)’ 제도도 안내됐다.

시니어들이 거주지나 시설에서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혜택도 소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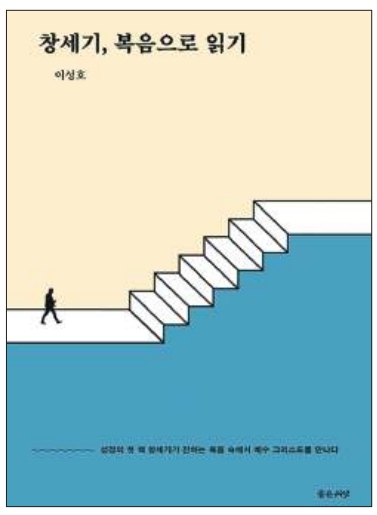
한편 오렌지카운티 제일장로교회 시니어 아카데미는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했다. 3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체계를 잡고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해 매년 정원을 늘려가는 상황이다.

시니어 아카데미에 문의는 (714) 931-5498으로 노후 복지에 대한 문의는 (661) 644-8943으로 하면 된다. 신정호 선임기자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성경의 첫 책 창세기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

창세기 펴서, '복음' 읽고자 하는 이들에게



창세기, 복음으로 읽기

이성호 | 좋은씨앗 | 600쪽 | 26,000원

성경의 다른 책들과 마찬가지로 창세기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다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 하나님을 배워야 한다. 간단히 말해, 이 책의 주인공은 아담이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조연일 뿐이다

"태초에" 라는 단어로 시작된 창세기는 히브리어 원문에 따르면 "애굽에" 라는 단어로 마찬다. 1장에서 생명 창조로 시작된 이야기가 50장에서 요셉의 죽음과 장례식으로 끝나고 있다. 겉보기에 결말은 비극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 이어지며 우리에게 소망의 근거가 된다

이성호 목사(고려신학대학원 조직신학 교수, 광교장로교회 담임)가 저술한 『창세기 복음으로 읽기』는 설교집이면서 동시에 성경신학적·조직신학적 통찰을 담은 저작이다.

창세기는 흔히 '시작의 책'으로 알려져 있지만, 저자는 이를 단순히 세계의 기원을 설명하는 역사적 문헌으로 보지 않는다. 그는 창세기 전체를 복음의 관점, 곧 하나님의 구속사적 언약의 시발점으로 읽어낸다.

창세기를 복음의 틀로 읽는 시도는 구약신학의 해석학적 난제 가운데 하나다. 창세기의 내러티브에는 신학적 선언과 역사적 서사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자는 이러한 구조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언약, 인간의 타락과 구속이라는 구속사적 대주제를 일관되게 관통시킨다. 따라서 본 서평의 목적은 이 책이 보여주는 창세기 해석의 신학적 의의를 검토하고, 특히 그 조직신학적 함의를 비평적으로 평가하는 데 있다.

이성호 목사는 창세기 1장을 단순한 창조 기사로 읽지 않고, 복음의 서론으로 해석한다. 그는 창조의 "좋았더라(창 1:31)"라는 표현을 "하나님과 인간, 피조 세계의 관계적 조화가 실현된 복음적 상태"로 이해한다.

즉 창조는 단지 세계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적 관계가 완성된 상태이며, 타락 이후 복음은 이 잃어버린 관계의 회복을 지향한다. 이러한 해석은 칼빈주의적 창조론, 곧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한 창조의 관점과 맞닿아 있다.

또한 저자는 창조의 주체를 말씀하신 하나님으로 규정한다. 이 점에서 그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강조하는 개혁파 계시론 입장을 견지한다. 말씀 선포가 곧 존재의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창조의 첫 장면은 이미 복음 선포의 원형으로 읽힌다.

책의 중심 축은 언약이다. 저자는 창세기 속 여러 언약—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이 점진적으로 발전해, 은혜언약으로 귀결되는 구속사적 연속성을 제시한다. 그는 "인간의 불순종이 언약을 깨뜨릴 수 없는 이유는 언약의 기초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위에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한다.

이는 개혁주의 조직신학 전통, 특히 언약신학의 핵심을 목회적 설교 언어로 구현한 예라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 스스로를 제한하시고 인간을 구속사의 파트너로 부르신다는 신학은, 창세기의 다양한 서사를 통합하는 결정적 신학적 틀로 작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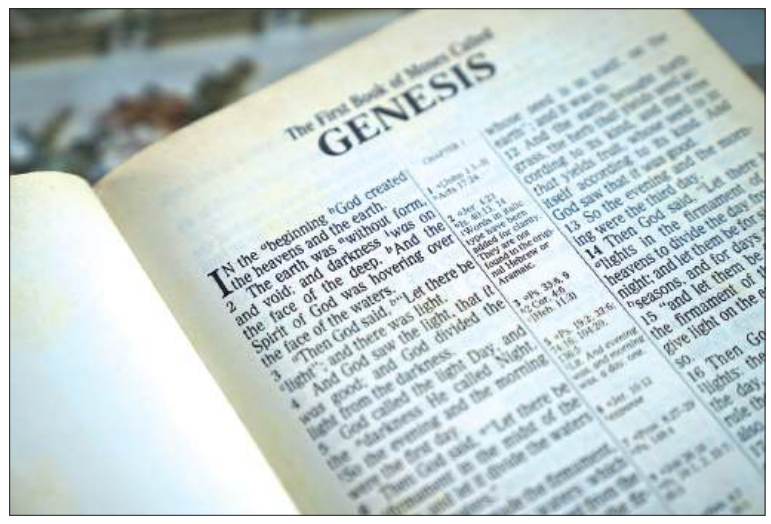
창세기 3장은 인간의 타락을 다루지만, 저자는 이를 복음의 발현점으로 읽는다. 그는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다(창 3:9)"는 장면을 심판이 아닌 구원의 호출로 해석한다. 인간은 숨었으나,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그의 진술은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를 드러낸다. 이는 루터와 칼빈이 강조한 은혜의 선행성과 긴밀히 연결된다. 저자는 타락 후에도 인간의 역사는 계속되지만, 그것은 죄의 확산이 아니라 확장의 장으로서 기능한다고 말한다. 가인과 아벨, 노아, 바벨탑 서사는 인간의 교만과 분리의 역사이지만, 그 속에서도 심판 안에 남은 은혜를 포착한다. 이러한 해석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간의 역사 속에서 실존적으로 조명한 시도라 평가할 수 있다.

책 후반부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의 이야기에 집중한다. 저자는 아브라함을 도덕적 모델이 아닌 언약적 믿음의 모범으로 제시한다. 그는 아브라함의 불완전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난다고 주장한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완전한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신뢰이며, 이것이 바로 의로 여김 받는 믿음의 본질이라고 강조한다.

특히 요셉의 고백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에 대한 해석은 책의 신학적 절정이라 할 수 있다. 저자는 이 구절을 섭리론의 결정적 본문으로 읽으며, "죄가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인간의 자유보다 크기 때문"이라고 평가한다. 이는 전통적 개혁파 하나님 주권론의 설교적 적용이라 볼 수 있다.

책의 특징은 학문적 신학과 목회적 적용의 균형이다. 저자는 창세기 사건을 단지 도덕적 교훈으로 환원하지 않고, 모든 본문을 복음의 서사 안에서 재구성한다. 예를 들어, 결혼에 관한 해석에서 그는 남자와 여자의 연합은 사회적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언약적 만남이라고 말한다. 이 진술은 창조론과 인간론, 그리고 구원론이 서로 긴밀히 연결돼 있음을 보여준다.

그의 설교는 신학적 체계 속에 있으면서도 실존적 감수성을 잃지 않는다. 창세기 이야기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 삶에 어떻게 복음으로 재현되는가를 끊임없이 묻는다. 이는 신학이 교회를 위한 학문임을 일깨워주는 탁월한 사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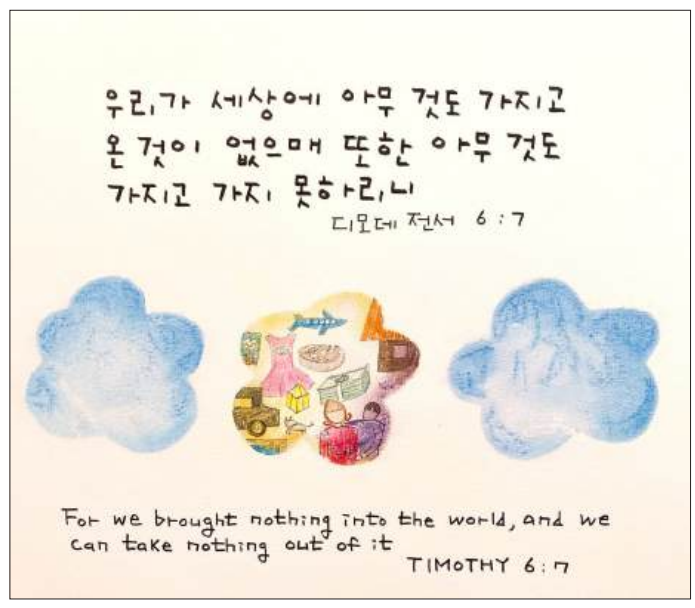
창세기 영어 성경. ⓒ픽사베이

『창세기 복음으로 읽기』는 단순한 설교집을 넘어, 구속사적 해석학을 설교의 형식으로 구현한 신학적 성과물이다. 저자는 창세기를 구약의 역사로서가 아니라 복음의 시발점으로 읽으며, 창조에서 구속에 이르는 하나님의 일관된 언약의 흐름을 제시한다.

조직신학적으로 본다면, 이 책은 창조론·인간론·죄론·구원론·섭리론·언약론을 하나의 해석학적 축으로 통합한다. 학문적 신학과 교회 현장이 분리돼 가는 시대에, 이성호 교수·목사의 설교는 신학이 교회를 섬길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서상진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위원

■ 금주의 말씀묵상 | 김영희 권사



龍水山
모임은 "용수산"
고품격 한정식 코스 요리와
다양한 일품요리 전문 용수산
예약 문의
213.388.3042
95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서성록, 한 점의 그림] 공감에 관하여

반 고흐 예술의 위대함, 곤궁한 이웃에 대한 깊은 애정

기독교적 공감, 죄 은폐하거나 복음 본질 희석 감상주의 아닌 죄로 망가진 현실 직시하면서 잔해 속 긍휼과 회복 갈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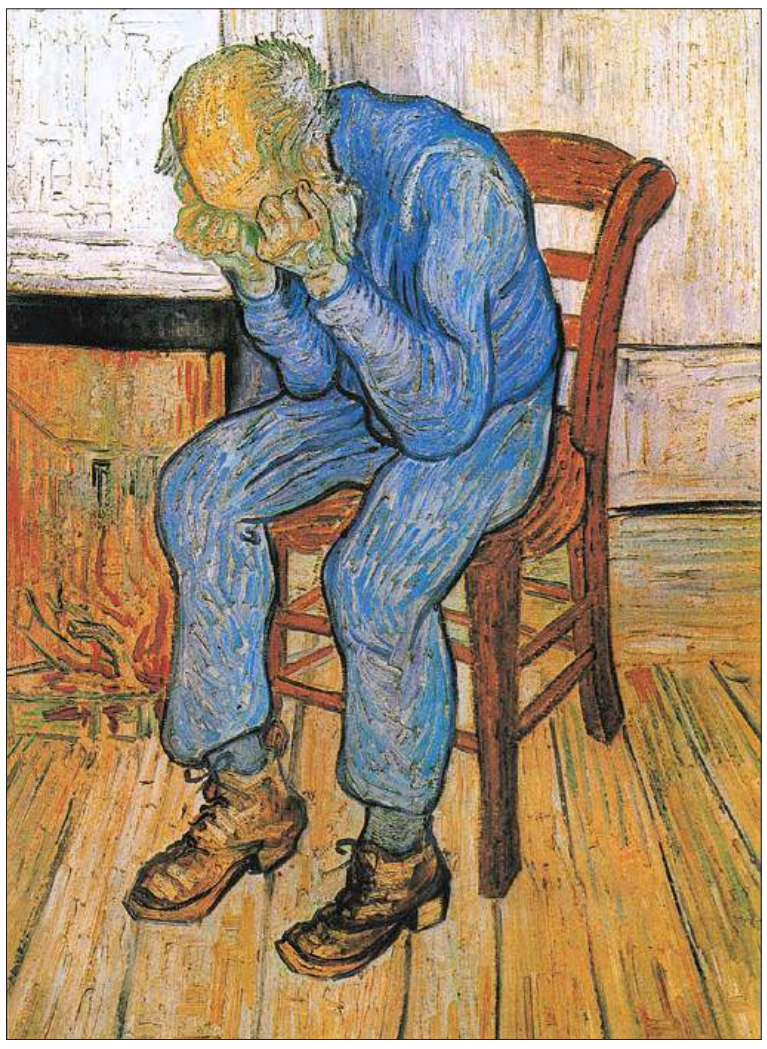
현대인은 무수한 다중적 페르소나(Persona) 속에서 살아간다. 복잡하게 분화된 사회적 역할과 과업에 부응하기 위해 저마다 여러 개의 가면을 덧쓸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이처럼 타인의 시선에 투사되는 자신의 상(像)을 유지하는 데 급급한 나머지, 정작 곁에 선 이웃이 어떠한 고유한 존재인지 깊이 헤아리지 못하는 '타자성 상실'이 도처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고립과 단절의 순간이야말로, 시선을 자기 내부에서 타자의 얼굴로 돌려야 할 때다. 나 중심의 시야를 넘어 타자관(他者觀)을 새롭게 정립하는 일, 곧 '공감의 역량'을 회복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 된다.

나와 타자의 관계가 결코 분리될 수 없으며, 나의 정체성 역시 타인과의 촘촘한 관계망 속에서 비로소 온전해지는 것이라면, 공감은 윤리적 권장을 넘어 인간 실존을 지탱하는 가장 본질적인 조건이다. 공감(Empathy)은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을 주관적으로 이입해 인지하는 수동적 상태에 머물지 않는다. 상담학자 D. 하우(D. Howe)가 지적했듯, 공감은 타인의 심리적·정서적 경험에 반응하는 나의 마음을 상대에게 전달하고 소통하는 깊은 영적 교류까지를 포함한다(D. Howe, Empathy, 이진경 역, 『공감의 힘』, 지식의숲, 2013, 31쪽).

예술 작품이 인간의 삶에서 소중한 가치를 지니는 까닭은 바로 인간의 복잡함과 나약함, 유한성과 독특함을 이해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예술을 통해 수많은 타인의 삶을 마주하며 그들의 영광과 슬픔, 희망과 절망을 함께 경험한다.

톨스토이(Leo Tolstoy)가 예술을 단순한 감각적 쾌락의 표현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결합시키는 수단'으로 정의하며, 예술의 본질적 특성으로 '감염성'을 꼽은 배경이 여기에 있다. 예술이라는 시각적·감성적 코드를 매개로 타인의 인생과 애환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정서적으로 결합될 수 있는 것이다. 미술가들은 일찍이 이러한 공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작품에 승화시켜 왔다. 대표적으로 요세프 이스라엘스, 빈센트 반 고흐, 조르주 루오의 작업은 공감의 모델을 보여준다.



반 고흐, 영원한 문에서, 캔버스에 유채, 81x65cm, 1890, 크뢸러뮐러 미술관 소장.



요세프 이스라엘스, 익사한 사람을 나르는 어부들, 캔버스에 유채, 129X244cm, 1862, 런던 내셔널 갤러리 소장.

'네덜란드의 밀레'로 불리는 요세프 이스라엘스(Jozef Israels)는 가난하고 겸손한 사람들의 삶을 화면에 담아냈다. 잔트포르트(Zandvoort) 어촌에서의 경험은 그의 예술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 그는 시골 어부들과 그 가족의 참상을 눈앞에서 목격하며 지나칠 수 없었다. '물에 빠진 사람을 옮기는 어부들(1862)'은 난파 사고로 비탄에 잠긴 가족과 이웃들의 슬픔을 뿌리치지 않았다. 나아가 그는 '우리는 늙어간다(1878)'나 '침묵의 대화(1882)'를 통해 인간이라면 피할 수 없는 자연적인 노화와 노년의 고독을 직시하게 만든다. 그의 시선은 노화를 일종의 질병으로 치부하는 현대의 자기중심성을 비판하며, 인간의 나약함에 대한 따뜻한 정서적 유대를 제시한다. 빈센트 반 고흐(Vincent van Gogh) 역시 보리나주(Borinage) 탄광촌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곤궁한 이웃에 대한 깊은 애정을 예술로 펼쳤다. 고흐에게 타자에 대한 관심은 중립적 시선이 아닌, 그들의 삶에 완전히 녹아드는 동화(同化)요 일치(一致)였다. '영원한 문에서'는 헤이그 요양원에서 만난 무의탁 노인 자위데를란트를 모델로 '삶의 끝자락에서 영원을 바라보는 태도'를 포착하였는가 하면, 뉘엔(Nuenen) 시절의 작품에서는 인근 농민들의 노동을 역사의 위인처럼 존엄하게 다루었다. 누구보다 낮고 외로운 자들의 편에 섰으며, 이웃을 향한 깊은 공감이 그의 예술적 지향점이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조르주 루오(Georges Rouault)는 서커스단의 어릿광대와 곡예사의 내면에 주목했다. 루오는 길가에서 화려한 의상을 수선하는 늙은 광대를 보며 "광대가 바로 나 자신이고 우리 자신"이라는 자각에 이른다. 루오의 '부상당한 광대(1932)'는 무대 뒤에서 다친 동료를 부축하는 광대들의 모습을 통해, 번쩍이는 의상 뒤에 숨겨진 인간의 초라함과 곤경, 고통을 생생하게 드러낸다. 그는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죄의 참상과 은혜를 갈망하는 얼굴을 찾아내며, 인간에 대한 깊은 사랑을 예술로 승화시켰다.

이처럼 예술가들이 보여준 공감의 실천은 결코 우연한 감정의 동요가 아니다. 낸시 피어시(Nancy Pearcey)가 지적하듯, 타인에 대한 공감은 생존을 위해 유전자가 만들어낸 환상이 아니라 궁극적 실재의 구조를 반영하는 인간 본성의 핵심 측면이다. 사도 바울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롬 12:2)"고 권면한다. 타인에 대한 공감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사역에서 절정에 달한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마 7:12)"는 황금률은 카렌 암스트롱(Karen Armstrong)이 '공감 원리(Empathic Principle)'라고 부른 기독교적 타자 의식의 정수로 손꼽힌다. 그리스도는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빌 2:7)로 오셨고, 한센병(성경 속 나병) 환자, 세리, 죄인 등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하시며 자기 부정과 희생을 통한 온전한 공감의 본을 보이셨다.

리처드 마우(Richard J. Mouw)는 『문화와 일반은총』에서 이러한 공감을 피조물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공감(Divine Empathy)'이라는 더 넓은 지평으로 확장한다.

마우는 동유럽 인종청소 과정에서 벌어진 비인간적인 참상을 예로 들며, 피해자가 구속사적 언약 백성에 속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참혹한 비극을 바라보실 때 깊이 탄식하며 함께 아파하지 않으시겠느냐는 물음을 던진다. 마우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영역을 넘어, 고통당하는 모든 피조물의 상처에 깊이 공감하시며 일반은총적 호의를 베푸신다고 역설한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예술작품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분의 작품을 망가뜨렸을 때에도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R. Mouw, Uncommon Decency, 홍병룡 역, 『무례한 기독교』, IVP, 2014, 35쪽)"는 선언은 타자성을 회복하기 위한 미학적 단초를 제공한다.

이러한 기독교적 공감은 죄의 현실을 은폐하거나 복음의 본질을 세속적 인도주의로 희석하는 감상주의가 아니다. 오히려 죄로 인해 철저히 망가진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그 파괴된 잔해 속에서 여전히 작동하는 창조주의 긍휼과 회복의 갈망을 증언하는 구속적 사역이다.

결국 예술가가 타자와 세계를 응시하는 시선 역시 이러한 '하나님의 공감'에 존재론적 근거를 두어야 한다. 진정한 예술적 자유는 자아도취적 폐쇄성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누누이 이야기되듯이 외부 세계 및 타자와 온당하고 정직한 관계를 맺는 데서 비롯된다. 타자의 고통에 기꺼이 응답하며 이웃과 더불어 온전함을 회복해 나가는 미학적 실천이야말로 우리가 되찾아야 할 모습이다.

서성록 명예교수(안동대 미술학과)



발달장애인과 함께 걷는 교회… 4년의 결실 매뉴얼로

'2026 한인교회 발달장애 컨퍼런스'가 10월 23일(금)부터 24일(토)까지 이틀간 캘리포니아 웨스트코비나 선한청지기교회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Indispensable — 함께여야 온전합니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한인교회 장애사역의 방향을 함께 모색했다.

GBC 미주복음방송과 선한청지기교회가 공동 주최하고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대학교(CPU), 월드미션대학교(WMU), 그레이스미션대학교(GMU), 밀알선교단이 협력했다. 네 차례의 주제 강연과 브레이크 세션, 패널 디스커션, 영상 페스티벌로 구성되었다.



2026 한인교회 발달장애 컨퍼런스

굿은 날씨에도 본당 가득… 신학적 토대 놓은 첫날

첫날인 23일(금) 저녁 집회가 시작되자 본당은 빈자리를 찾기 어려울 만큼 참석자들로 가득 찼다. 찬양과 배주은의 특송으로 시작된 집회에서는 풀러신학교 아모스 용(Amos Yong) 교수가 고린도전서 12:12-13:13을 본문으로 '필수불가결성, 가장 큰 계명,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Indispensability, the Greatest Commandment and the Body of Christ)이란 주제로 강연했다.

용 교수는 공동체 안에서 은사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일과 사랑의 실천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짚으며 컨퍼런스 주제의 신학적 토대를 제시했다.

강연과 교제에 집중한 둘째 날

24일(토)은 예년보다 강사진 규모를 줄이는 대신, 참석자들이 강연 내용을 충분히 소화하고 서로 교제할 수 있도록 일정에 여유를 뒀다.

오전 전체 예배에서는 『Unbroken Faith』의 저자이자 장애사역 컨설턴트인 다이앤 도코 김(Diane Dokko Kim)이 '깨어지지 않는 믿음: 장애 가족과 함께 걷는 교회'를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자폐 아들을 키워 온 한인 1.5세 어머니이자 20년 넘게 장애사역에 헌신해 온 그는 한류로 한국 문화가 세계의 주목을 받는 지금이 한인교회가 장애 가정을 품어야 할 '바로 이때'(에 4:14)라고 강조했다. 또한 장애 가정에 교회가 필요한 만큼 교회에도 장애 가정이 필요하다며,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는 관계를 넘어 서로를 필요로 하는 공동체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오후에는 조이장애선교센터 대표 김홍덕 목사(H. Daniel Kim)가 '장애를 바라보는 눈과 교회의 사명'을 주제로 강연했다. 김 목사는 의학적·행정적 장애 분류가 한 사람의 일부 특성을 설명할 수는 있어도 그 사람의 정체성 전체를 규정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로 인한 차이를 보기 전에 모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사역 역시 장애인을 '위하여(For)' 일하는 시혜적 접근에서 벗어나, '함께(With)' 삶과 신앙을 나누며 서로 의지하는 공동체를 지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삶의 현장에서 길어 올린 증언

이번 컨퍼런스에서 참석자들의 마음을 가장 깊이 움직인 것은 발달장애 자녀와 가족을 둔 강사들의 생생한 증언이었다.

삶의 현장에서 길어 올린 진솔한 고백은 이론을 넘어 공감과 감동으로 이어졌다.

장애사역을 둘러싼 부모와 교회의 입장과 현실적 고충도 논의됐다.

패널 디스커션 순서는 Sean Lee(ANC 온누리교회 장애사역 부서 담당)전도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송병주 목사, Being Built Together 백진숙 대표, 특수교육 교사 Sarah Lee, 발달장애 자녀를 둔 이민아 권사(선한목자교회)가 패널로 참여했다.

교회, 기관, 학교와 가정이라는 각기 다른 자리에서 장애사역을 감당해 온 이들은 현장에서 마주한 과제와 질문을 나누며, 깊이 있는 고민과 성찰의 계기를 제공했다.

첫선 보인 한어권 세션, 현장 사역자들의 호응

올해 처음 신설된 한어권 브레이크 세션은 장애사역을 준비하는 교회 사역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 호응을 얻었다.

그레이스미션대학교 에스티 송(Estée Song) 교수는 'ASD 이해하기: ASD 친화 교회 사역을 통한 아동과 청소년의 포용적 참여와 영적 성장 지원'을 주제로, 감각 휴식 공간 마련과 예측 가능한 예배 환경 조성, 가족과의 신뢰에 기반한 협력 체계 등 ASD 친화 교회를 세우기 위한 실천 지침을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월드미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현아 교수는 '교회 장애사역을 위한 미국 사회복지체계'를 주제로 리저널센터(Regional Center)를 중심으로 한 캘리포니아의 생애주기별 공적 서비스 체계를 짚고, 교회가 장애 가정과 공적 제도를 잇는 '연결자'로서 감당할 역할과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했다.

영어 브레이크 세션에서는 아모스 용 교수와 라이프퍼시픽대학교 앤드류 오피 목사(Rev. Dr. Andrew K.Opie)가 '장애신학으로 성경 읽기'를, 다이앤 도코 김이 '특별한 필요를 가진 자녀의 부모를 위한 영적 회복'을 주제로 각각 강의했다.

CPU와 GBC가 공동으로 선보인 제1회 '동행과 상생 영상 페스티벌'은 행사의 깊이를 더했다.

각 세션 사이 초청작을 상영해, 강연장의 메시지를 삶의 이야기로 옮겨 내며 묵직한 울림을 전했다.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 함께 걷는 공동체를 그린 Being Built Together(BBT)의 이야기 'Where the Trees Stand Together', 아들 재진을 통해 삶이 새로워진 셰프 토미 리(Tommy Lee)의 이야기 'French Papa: Cooking Life Anew', 발달장애를 가진 성도가 집사로 세워지는 과정을 담은 'Special Anointing' 영상이 상영됐다.

세심한 환대와 7개 기관 홍보 부스, 풍성함 더해

개최교회인 선한청지기교회는 야외 패티오에 다양한 음식을 무료로 제공하며 참석자들을 정성껏 맞았다.

4년의 결실 '발달장애 사역 매뉴얼', 초안 검토

점심시간에는 초청제로 진행된 전문가 오찬 워크숍에서 기관·교회 사역자들이 '발달장애 사역 매뉴얼' 초안을 함께 검토하고 보완했다. 지난 4년간 컨퍼런스를 통해 축적된 현장의 노하우와 리소스를 집대성한 매뉴얼은 11월까지 완성 작업을 거쳐 12월 한인교회에 배포될 예정이다.

김민선 기자

영어 독해, 은혜와 감동의 스토리로 만나다

딱딱한 예문이 아니라, 은혜와 감동의 글을 읽으며 자연스럽게 영어를 배울 수 있다면? 본지는 매주 한 편씩 한글과 영어로 된 감동 스토리를 연재합니다.

최그레이스 원장은 현재 서울 성북구 정릉에서 영어학원을 운영 중입니다. -편집자 주

코로나 확진자 할아버지

93-year-old man who got COVID-19

코로나 확진을 받은 93세 프랑스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There is a story about a 93-year-old man who got COVID-19 in France.

그는 코로나에 감염되어 병원으로 이송된 후, 꼬박 하루 동안 산소 공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Moving to the hospital, he got oxygen almost for a whole day.

이후 몸 상태가 호전된 할아버지는 곧 퇴원을 하게 되었고, 50만 프랑의 의료비를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Soon, the man got better and he had to pay 50 francs for his medical fee before leaving the hospital.

그런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Suddenly, he began to cry.

이 모습을 본 의료진은 할아버지가 큰 비용으로 힘들어하시는 줄 알고 위로의 말을 건냈습니다. When the doctor saw him cry, he found the man sad because of the big expense for his medical treatment.

그러자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하며 우리를 감동하게 하였습니다. Then, the man made us touched as he said,

"나는 제 치료비를 보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I'm not crying because of what I have to pay for.

24시간의 산소 공급 비용이 고작 50프랑이라니요. But, only 50 francs for 24-hour-oxysen?

그렇다면 나는 93년 동안 무료로 산소를 마시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빚을 진 것인가요?" How much, then, have I owed God my breath for free for 93 years?"

우리는 거저 받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나요? Are we truly thankful for what we just get for free?

당연히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Or, do you just take it for granted?

때로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소중하답니다. Sometimes, the more precious things are hidden around us.


▲최그레이스 원장.

YouTube 문선영의 머니토크

"자녀에게 다 넘겨주면, 양도세도 메디칼도 괜찮겠지요?"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여러분의 재정상담과 플랜을 돕고 있는 문선영의 머니토크의 재정전문가 문선영입니다.

지난번 말씀 드린 대로 트럼프 행정부가 2027년 7월에는 이 자산의 제한 한도액을 무려 한 사람은 2만 1천 달러! 그리고 두 사람은 3만 1천 달러로 낮춰지게 됩니다 .

그래서 그냥 모든 재산을 이번 기회에 애들에게 다 물려주자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때 메디칼을 받기 위해 자녀에게 재산을 미리 증여하면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에게 돈을 줬다고 무조건 증여세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2027년 캘리포니아 메디칼 자산 기준이 낮아지는 상황에서는 다음 세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첫 번째,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 발생하는 증여세 Gift Tax 입니다. 2026년 미국 증여세 기준은 1인당 연간 증여세 신고면제액이 $19,000 달러 이지요. 그리고 개인이 갖을 수 있는 평생 증여 상속세 기본 공제액은 15 밀리언입니다. 다만 여기서 한가지 주의할 점은 이 $15 million은 평생 증여에만 적용되는 별도 한도가 아니라, 생전에 증여하는 금액과 사망후 상속재산에 함께 적용되는 통합 공제 한도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어머니가 성인 딸에서 현금 $100,000을 증여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2026년 연간 증여세 제외액이 $19,000 이지만 평생 증여, 상속세 공제액에서 나머지 $81,000의 혜택을 볼 수 있어서 실제로 납부 증여세는 $0 이 되는 거지요. 부모님이 IRS Form 709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또한 증여받은 딸은 일반적으로 현금 $100,000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소득세를 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번째,** 과연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을 주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집이나 주식을 증여받은 자녀는 나중에 이것을 팔 때 양도소득세(Capital Gain Tax) 문제입니다. 만약 은행에 있는 현금이나 IRA를 물려주게 되면 받을때 자녀는 일반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식이나 부동산을 물려주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세금이 없지만 자녀가 나중에 팔때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지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200,000에 구입한 집이 현재 $800,000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메디칼 때문에 부모가 살아 있을 때 이 집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자녀는 일반적으로 부모의 기존 취득원가인 2십만불을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자녀는 받을 당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이것을 부모가 살아 생전 증여한다고 해서 carryover basis라고 하니 부모가 사망후에 상속하는 step up basis와는 다릅니다. 이때 자녀가 나중에 $800,000에 팔면 단순 계산상 $600,000의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거죠.

하지만 **세번째,** 자산을 증여하고 메디칼을 받게 된다고 해도 장기요양 long term care 혜택을 받는데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주 보건의료 서비스국 (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 DHCS)에 따르면 일반적인 메디칼 자격에서는 자산을 증여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롱텀케어 장기요양 혜택을 받는 메디칼은 다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진 일부 자산 증여는 30개월 즉 2년 6개월 이전의 자산까지 모두 심시기간으로 포함을 시켜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판단다면 장기요양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역시 **네번째,** 뭐니뭐니해도! 자산 기준이 또 바뀔 수 있는데 자녀에게 모든 자산을 다 넘겨 주고 나서 나중에라도 부모가 갑작스럽게 돈이 필요할 때 과연 자녀들에게 그 돈을 요구할 수 있을까, 돌려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염려입니다. 아 물론 부모의 자산을 맡겨 놓는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시겠죠, 다만 명의만 바꿔놓는 것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자녀들의 생각은 대부분 다릅니다. 미안하고 유감스럽지만 자녀들은 이제 한번 들어온 자산은 나의 자산이다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넘기면 그 재산에 대한 법적 소유권과 통제권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증여세를 안낸다고 해서 메디칼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고, 자산을 어디에 어떻게 넣어 놓느냐에 따라 실제 모든 것을 자녀들에게 넘기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꼭 숙지하시고 **앞으로 30년을 여러분과 함께 할 재정전문가팀 문선영의 머니토크팀과 꼭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Finance & Marketing WISECALIFORNIA

626-827-9599

3435 Wilshire Blvd., 14F A-04, Los Angeles, CA 90010
6 Centerpointe Dr., Suite 737, La Palma, CA 90623
7825 Engineer Rd., Suite 201, San Diego, CA 92111


이윤화
가을버스킹 공연
The Source Busking Live
11/07 (토) 3:00pm
소스 몰 (The Source)
6940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1
THESOURCE